10.15686/fkl.2025..66.359 OPEN ACCESS

학생운동권 서사의 감정 승인 플롯과 젠더 장치 연구

-방현석의 『십 년 간』(1995)과 권여선의 『푸르른 틈새』(1996) 비교를 중심으로

송상덕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목차

1 서론
2 ‘헌신’이라는 감정 승인 플롯의 형성: 『십 년 간』(1995)
2.1 감정 승인 플롯의 물질적 기반과 표현적 장치 분석
2.1.1 물질적 기반 분석
2.1.2 표현적 장치 분석
2.2 ‘헌신’이라는 감정 승인 플롯의 형성
2.2.1 ‘헌신’의 감정 승인과 계승의 플롯
—감정 승인 구조의 형성
2.2.2 ‘동지애’의 감정과 교차되는 플롯
—감정 승인 구조의 수평적 확장
2.2.3 접속 문턱으로서의 젠더: 플롯에서 밀려난 여성들
2.2.4 감정 승인 규칙의 젠더 비용
—플롯의 반복과 감정 승인의 재생산
2.2.5 ‘연대’의 징후—플롯 밖의 정동들
3 ‘헌신’의 플롯 해체와 ‘연대’의 가능성: 『푸르른 틈새』(1996)
3.1 감정 승인 플롯의 물질적 기반과 표현적 장치 분석
3.1.1 물질적 기반 분석
3.1.2 표현적 장치 분석

3.2 ‘헌신’의 플롯 해체와 ‘연대’ 플롯의 재구성
3.2.1 ‘헌신’의 플롯에서의 이탈: 플롯의 중단과 정동의 차단
3.2.2 감각적 회고와 '연대'의 플롯
: 감정 재생산 수행으로의 재접속
3.2.3 레즈비언 욕망과 ‘헌신’ 플롯의 재조립
3.2.4 ‘헌신’의 플롯에서 ‘연대’의 플롯으로
4 ‘주체’의 수행에서 수행의 ‘장치’로
: 관계의 외재성/내재성과 감정 승인 장치의 정치
4.1 관계의 외재성과 내재성
4.2 외재적 관계의 응고와 접속 문턱으로서의 젠더
:『십 년 간』(1995)
4.3 관계의 재조립과 감정 재생산의 수행:『푸르른 틈새』(1996)
4.4 ‘주체의 수행’에서 ‘수행의 장치’로: 감정 승인 플롯의 이론적 전환
5 결론

우리는 어떤 조직을 남성중심적 혹은 가부장적이라 판단할 때, 종종 감정 자원의 배분과 승인 구조라는 더 깊은 층위를 간과한다. 감정이 조직의 정당성을 어떻게 뒷받침하며, 감정 자원이 젠더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고 승인되는지는 여전히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감정은 사회적 승인 절차를 전제하는 구조, 곧 '감정 승인 플롯' 속에서 승인되거나 배제된다. 본고는 '감정 승인 플롯'이라는 개념을 통해, 1990년대 운동권 서사에 재현된 감정 승인 구조의 장치들, 특히 젠더화된 접속 문턱을 분석한다. 이때 방현석의 『십 년 간』(1995)을 헌신 중심 감정 승인 플롯의 기본 모델로, 권여선의 『푸르른 틈새』(1996)를 그 모델을 비틀고 재조립하는 변형으로 읽되, 이를 남성/여성 작가 또는 남성성/여성성의 대비 구도로 환원하지 않는다.

『십 년 간』은 감정이 내면의 자연스러운 표현만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 승인되는 방식으로 정동 위계를 형성하는 구조를 드러낸다. 핵심 인물들은 지하 써클 내에서 반복되는 절차와 압축된 시간 리듬 속에서, 슬픔이나 회한을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승인받는다. 이는 특정 감정만을 허용하는 반복 구조, 즉 감정 승인 플롯을 형성한다. 반면 여성 인물들의 돌봄과 정서 유지노동은 승인 바깥에 머무르며, 서사의 리듬을 유지하는 비가시적 장치로 기능한다. 이때 젠더는 고정된 정체성의 본질이 아니라, 감정 승인 구조에 접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장치적 문턱으로 작동한다.

『푸르른 틈새』(1996)는 이러한 승인 구조의 균열을 보다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십 년 간』이 제시한 헌신 플롯을 내부에서 재조립하려는 서사적 실험을 수행한다. 실직한 아버지의 '치킨 수프'는, 남성 주체가 돌봄과 정서 유지노동을 수행하는 장면이며, '헌신' 이외의 감정들이 승인될 수 있도록 감정 승인 구조를 전환시키는 장치로 작동한다. 손미옥의 레즈비언 욕망은 감정 승인 구조를 재배치하는 또 다른 수행적 경로다. 이 욕망은 '아버지-딸' 구도를 중심으로 구축된 승인 체계를 벗어나 쾌락의 리듬을 재조정함으로써, 승인되지 않았던 감정과 욕망을 새롭게 접속한다. 이때 두 텍스트의 차이는 젠더의 차이보다, 동일한 감정 승인 플롯이 서로 다른 물질적·표현적 장치 위에서 어떻게 다르게 배열되고 변형

되는가의 차이로 이해된다.

결국 본고는 감정의 내용 자체보다, 감정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서사 구조와 수행 장치(장소—인프라, 절차, 시간층, 기호, 담론, 서사 등)의 설계에 주목한다. 『십 년 간』과 『푸르른 틈새』는 감정 승인 구조가 주체의 내면이나 윤리에 환원되지 않으며, 반복과 접속 규칙, 장치적 배치에 따라 감정의 위계가 형성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본고는 감정 승인 플롯이 특정 감정을 승인하는 반복 구조이자, 그 구조를 어긋나게 할 수 있는 장치로도 기능함을 분석하며, 정체성 정치가 아닌, 수행 장치의 설계를 중심으로 한 장치 정치의 분석 틀을 제시하고, 그것이 문학 텍스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국문핵심어: 방현석, 권여선, 운동권 서사, 후일담 문학, 감정 승인 플롯, 헌신의 플롯, 젠더화된 접속 문턱, 수행의 장치, 감정 재생산 수행, 퀴어 욕망

1 서론

1990년대는 한국 사회에서 이념의 전환과 민주주의 이행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동시에 학생운동권은 정치적 동력을 상실하며 해체되었고, 그 내부에서 축적되었던 감정들은 ‘환멸’과 ‘허무’라는 정서로 정리되었다. 이후 1990년대 운동 조직을 서사화한 많은 문학 텍스트는 이 감정을 ‘진정성 있는 실패의 정서’로 승인하며, 학생운동권의 기억으로 고착시켰다. 그러나 바로 이 감정 구조 속에 젠더 위계가 어떻게 개입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오랫동안 미뤄져 왔다.

어떤 조직이 남성중심적이라거나 가부장적이라는 평가는 흔하지만, 이를 단순히 남성 리더의 존재나 몇몇 차별적 발언과 행위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여성 리더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조직이 젠더적으로 평등해졌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물음은 조직 내부에서 권력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정당화되며, 특정 구성원은 어떻게 배제되는가에 대한 보다 복합적인 분석 도구를 요구한다. 특히 감정이 조직의 정당성을 어떻게 뒷받침하는가, 감정 자원이 젠더에 따라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특히 감정이 학생운동 네트워크의 정당성과 위계를 뒷받침하는 역할에 주목하여, 1990년대 중반의 회고적 시선 속

에서 다시 호출되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감정 재생산 구조와 젠더 수행 양상을 분석한다. 학생운동이 쇠퇴한 이후 '헌신'의 감정이 실패의 경험을 매개로 '환멸'로 전이되며 하나의 승인된 감정 구조를 이루는 과정과 '돌봄'과 같은 수행이 비정치적이거나 사소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변화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학생운동을 다룬 기존 문학 연구는 1980년대를 회고하는 후일담 소설을 중심으로, 1990년대를 '헌신의 실패' 곧, '환멸'의 시대로 규정해왔다.[1] 이들 연구는 1987년 민주화와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와해된 학생운동 속에서 등장한 남성 지식인의 죄의식과 자기반성을 진정성의 감정으로 승인하고, '환멸'을 시대의 대표 정서로 정식화했다.[2] 그러나 이러한 감정이 어떻게 승인되었는지, 그 승인 과정에서 어떤 감정들이 주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5년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운동권 네트워크를 젠더 관점에서 재조명하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후일담 문학이 구성한 젠더 위계를 비판하고 여대생에게 강요된 금욕주의에 관해 분석하거나[3], 여성 주체의 억압된 섹슈얼리티 등 기존 연구에서 배제된 정동의 층위를 복원해냈다.[4] 또한

---

1 서영채, 「소설의 운명, 1993」, 『오늘의문예비평』 제20호, 오늘의문예비평, 1996봄, 205쪽; 조연정, 「기형도와 90년대」, 『구보학보』 제22호, 구보학회, 2019, 645-648쪽.

2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제43권 5호, 한국사회학회, 2009, 1-29쪽; 조윤정, 「1980년대 운동권에 대한 기억과 진보의 감성」, 『민족문화연구』 제67호, 민족문화연구원, 2015, 277-304쪽; 임희현은 후일담 문학을 '공적 애도의 결핍'에 대한 문학적 반응으로 해석한다.(임희현, 「1990년대 한국 후일담 문학과 '애도'의 의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5, 2장, 36-80쪽, 참조)

3 김은하, 「'살아남은 자'의 드라마—여성 후일담의 이중적 자아 기획」,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310-339쪽; 특히 전희경은 2000~2007년까지 90학번부터 04학번의 여성들을 인터뷰하여 운동권 네트워크 내부의 가부장적인 관습을 구체적으로 살핀 바가 있다.(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진보의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들 이야기』, 이매진, 2008)

4 이채원, 「후일담 소설의 젠더 지평」, 『여성문학연구』 제4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91-226쪽; 배하은,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아이러니-1980년대 운동권 여대생의 정치적 주체성 구성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제40집,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2023, 3-25쪽; 배하은,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아이러니(2)-운동권 여대생 소설의 1990년대적 주체 구성의 기획」, 『여성문학연구』 제6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40-68쪽; 이소영, 「1990년

1990년대 페미니즘 운동과의 교차점 속에서 후일담 문학을 재해석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5] 이러한 연구 경향은 환멸과 허무 중심의 감정 구조에 균열을 내며, 비가시화된 정동의 재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본 연구는 이 흐름을 계승하되, 젠더 규범이 운동권 내부의 감정 배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감정의 승인 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990년대 학생운동권과 문학장(場, champ)에서는 환멸의 정서가 팽배했지만, 동시기의 다른 시민운동은 오히려 연대와 희망의 전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노동운동, 페미니즘 운동, 장애인 운동, 퀴어 운동 등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정동 자원을 형성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해 나갔다.[6] 따라서 특정 감정만을 대표 정서로 전면화한 문학장의 승인 구조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문학사를 둘러싼 비판적 연구들은 1990년대를 진정성과 내면성 담론으로 해석하며 이를 역사화하고, 문학장의 자율성과 감수성을 재평가하려는 시도를 보여주었다.[7]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여전히 문학장을 중심으로 한 계보화

대 페미니즘 정치와 여성의 고통받는 몸—『베틀』, 『나눔터』,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6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69-110쪽; 임희현, 앞의 글, 2025, 83-133쪽, 3장 참조.

5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77-416쪽; 문예지, 「30대 페미니스트 서사에서 세대의 교차와 분화 읽기—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5호, 한국현대문학회, 2021, 221-257쪽; 최가은, 「90년대 여성문학의 곤란한 '대중성'—공지영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342-374쪽.

6 〈또하나의문화〉나 〈여성과사회〉를 주축으로 한 페미니즘 운동, 〈장애인청년운동연합〉(1991년 발족)의 장애인 운동, 성소수자 인권단체 초동회(1993년 발족), 한국게이권단체인 〈친구사이〉(1994년 발족), 한국여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1994년 발족) 등의 퀴어 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이 전개되었다. 물론 시민운동 내부의 정동 배치 역시 균질하지 않으나 '환멸'이라는 대표 정서로 수렴된다고 볼 수 없다.

7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들」, 『한국학연구』 제56호,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0, 249-273쪽; 배하은,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1980~90년대 문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허학보』 제66집, 상허학회, 2022, 151-192쪽; 강동호는 문단 문학장의 중심성과 비평 주체의 발화에 초점을 맞추며, 문학장의 제도성과 진정성 담론의 역사를 밝히고자 한다. 반면 배하은은 비평 담론이 독자들을 텍스트의 주체에 쉽게 동일시하는 존재로 상정해온 전제를 비판하며, 독자들이 수행

틀 안에서 사고하며, 진정성의 실패에 따른 환멸의 감정이 승인되고 배치되는 구조를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문학장을 넘어선 소수자 운동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감정 승인 구조의 다층성과 이질성을 드러내며 중요한 보완 지점을 제공하고 있다.[8] 본 연구는 문학장 내의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되, 그것을 문학사 내의 계보로 환원하지 않고,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정동 구조와 접속하는 하나의 감정 승인 장치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핵심 분석 틀은 감정의 승인 구조이다. 감정의 승인은 특정 감정이 공적 장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감정을 수행하는 행위자에게 공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감정 승인 구조는 장소와 인프라, 인적 자원, 절차와 시간 리듬, 기호·담론·서사 등 물질적·표현적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구성되는 수행 장치이며, 이는 정체성 범주 자체보다 선행하는 수준에서 감정의 생산·배분·인정을 조직한다. 본 연구는 정동의 흐름이 이러한 승인 장치 속에서 감정으로 형식화되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학생운동 네트워크의 젠더 위계가 어떻게 구성·유지되는지 밝히고자 한다.[9] 이는 곧 정체성 중심의 분석에서 수행 장치 중

한 능동적 행위를 역사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독자들의 능동적 행위를 문학장 바깥의 시민운동과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8 안세진은 90년대 문학비평이 놓친 영역을 문화비평에서 다시 사유한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수용 속에서 서동진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연구가 리얼리즘적 유산을 해체하고, 자율성과 다양성, 차이라는 보편 가치를 재구성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안세진, 「1990년대 한국 문학 비평의 '패배할 수 없는 구조'—포스트모더니즘과 미적 근대성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 『상허학보』 제72집, 상허학회, 2024, 497-530쪽) 이처럼 문학장을 넘어선, 정동의 지형을 드러내는 작업은 문학 내부의 감정 구조를 다른 사회적 감정 지형과 연결해 분석하려는 최근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단 내부가 아닌 소수자 운동의 정동 구조와 서사를 중심으로 문학의 위치를 재구성하려는 다음의 연구들이 중요한 보완 지점을 제공한다. 유승희, 「『실천문학』이라는 아카이브: 운동-기록으로서의 문학과 1980년대의 『실천문학』」, 『서강인문논총』 제65호,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22, 5-36쪽; 장성규, 『문학의 민주주의—구로노동문학회소사(小史)』, 역락, 2025; 노태훈, 「1990년대 한국소설과 소수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2; 백종륜, 「1990년대 이남희 소설의 희망론—생태주의와 퀴어/페미니즘의 교차점 모색하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2호, 한국현대문학회, 2020, 67-105쪽; 정윤영, 「1990년대 소설과 영화의 퀴어 섹슈얼리티 연구—퀴어 주체의 정체성 트러블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심의 분석으로의 이론적 전환을 요청한다.

이러한 분석 틀은 로렌 벌랜트(Lauren Berlant)와 마누엘 데란다(Manuel DeLanda)의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벌랜트는 감정을 개인의 표현이나 내면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장르와 제도적 구조 속에서 구성되는 공적 체계로 이해한다. 다시 말해 감정은 개인의 표현이 아니라, 장르·상황·몸짓 등의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형식 안에서 의미화되는 경험이다.[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운동권 조직 내부에서 '헌신'이 승인된 감정으로 작동하고, '돌봄'이라는 정동의 수행이 비정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배제되는 현상은, 감정이 공적 장에서 의미화되는 방식, 즉 '감정의 승인' 메커니즘이 작동한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11]

데란다의 조립체(assemblage) 이론은 이 승인 장치가 어떤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작동하는지를 해부하는 방법론적 틀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실체는 물질적 역할(장소·인프라·인적 자원·절차·시간 리듬 등)과 표현적 역할(기호·담론·서사 등)의 구성요소의 결합으로 구성된다.[12] 즉 조립체 이론은 물질적

9 본 연구는 정동(affect)을 비언어적·비표상적 접속의 역량으로, 감정(emotion)을 사회적으로 승인된 감정의 형식화 결과로 본다. 다만 브라이언 마수미가 『가상계(Parables for the Virtual)』(조성훈 역, 갈무리, 2011)에서 제안한 정동과 감정의 이분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정동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수행 장치를 통해 의미화되는 과정을 거쳐 감정으로 형식화되는 방식에 주목한다. 한편 '정서(sentiment)'는 개별 주체의 내면 심리라기보다, 특정 시기와 장(場)에서 대표 감정으로 승인되어 다양한 경험을 하나의 형식 아래 묶어내는 집합적 감정 구조를 뜻한다. 다시 말해 '시대의 정서'는 여러 정동의 흐름 가운데 일부 감정이 공적 정당성을 획득해 중심 감정으로 전면화된 상태를 가리킨다.

10 로렌 벌랜트, 박미선·윤조원 역, 『잔인한 낙관』, 후마니타스, 2023, 14-17쪽, 30쪽; 벌랜트는 『잔인한 낙관』에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개인이 삶에 대한 낙관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한 감정적 애착에 의존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애착'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제도와 장르를 통해 형식화되는 관계적 구조로 작동한다. 따라서 감정은 개인의 내면이 아니라, 사회적 형식과 인프라를 통해 조직되는 공적 관계의 산물이다.

11 본 연구는 벌랜트의 애착 구조 개념을 확장하여, 특정 감정이 공적 장에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감정을 수행하는 행위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과정을 '감정의 승인'으로 정의한다. '감정의 승인'은 정동이 사회적으로 승인된 감정으로 번역·고정되는 메커니즘을 지칭한다.

12 마누엘 데란다, 김영범 역, 『새로운 사회 철학—배치이론과 사회적 복잡성』, 그린비, 2020, 39-42쪽.

요소와 표현적 요소의 결합 방식을 통해 특정 감정이 승인되고 어떤 정동이 비가시화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유효한 도구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운동 조립체에서는 시위, 의례, 공간 점거와 같은 물질적 행위와 더불어, 충돌과 갈등을 재구성하는 내러티브가 함께 작동하며 집단 정체성을 형성한다. 내러티브는 정체성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라, 물질적 요소들과 결합하여 조립체를 안정화시키는 표현적 구성요소 중 하나로 이해된다.[13]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확장하여, 서사·기호·담론 등 표현적 장치의 작동을 특정 감정을 승인/비승인하는 메커니즘으로 독해한다. 문학 텍스트에서 감정 승인 구조는 서사적 시간과 인과의 배열 속에서 형식화되며, 감정의 승인과 배제의 규칙이 서사의 진행 속에서 반복·변주되는 플롯(plot)으로 구현된다. 플롯은 감정이 사회적으로 승인/배제되는 절차를 서사적 문법으로 형식화하는 장치로서, 사회적 감정 승인 구조를 텍스트의 내러티브 질서로 전이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14] 벌랜트가 정동이 포화시킨 형식의 패턴을 장르(genre)의 문제로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듯, 정동은 특정한 장르와 이야기 형식 안에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다.[15] 특히 본고는 '현실'의 플롯과 '소설'의 플롯을 서로 다른 층위로 구분하지 않는다. 이는 '현실'이 소설 텍스트와 동일하다는 뜻이 아니라, 학생운동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감정 승인 구조에 대한 접근이 애초에 후일담 서사, 회고, 구술, 내부 신화 등 다양한 재현 형식을 경유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이때

13 데란다는 찰스 틸리(Charles Tilly)의 논의를 따라, 사회운동에서 발생한 충돌이 내러티브를 통해 조직화되며, 집단 정체성을 강화하고 '우리/그들'의 경계를 구성한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 재현이 아니라 정체성을 영토화(territorialization)하는 효과를 낳는다.(마누엘 데란다, 김영범 역, 앞의 책, 2020, 103-105쪽, 참조)

14 캐롤라인 래빈은『형식들』(2021)에서 플롯을 단일한 메시지나 진술로 환원할 수 없는 복합적 형식으로 설명한다. 플롯은 다양한 형식적 요소들이 시간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관계적 의미를 생산하는 장치로, 사회적 질서의 복잡한 구조를 드러낸다.(캐롤라인 레빈, 백준걸·황수경 역,『형식들』, 앨피, 2021, 67쪽) 따라서 감정 승인의 구조와 같은 복합적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롯'이라는 형식의 매개를 통해 그 상호작용의 역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5 로렌 벌랜트, 앞의 책, 34-35쪽; 벌랜트는 정동이 형식을 포화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역사적 순간이 오장육부로 느껴지는 순간의 조건을 탐색할 수 있다고 본다.

현실의 감정 승인 구조 역시 서사적 장치와 물질적 장치가 결합된 하나의 조립체로 이해된다. 즉 학생운동 서사는 현실과 분리된 반영의 장이 아니라, 운동권 내부의 감정 승인 구조가 텍스트라는 표현적 장치 속에서 어떻게 응축·변형되는지를 드러내는 매개로 읽힌다. 따라서 소설과 같은 서사 텍스트를 통해서 학생운동권의 감정 승인 구조의 형식과 규칙을 보다 구조적 수준에서 역추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바탕으로 1993년 이후에 발표된 방현석의 『십 년 간』(1995)과 권여선의 『푸르른 틈새』(1996)에 주목한다. 방현석(1961~, 80학번)은 중앙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으로 인천의 노동조합 활동에 투신한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작가이며, 권여선(1965~, 83학번)은 서울대학교 인문대 지하 써클에서 활동한 운동권 출신 작가이다. 이들은 당대 유사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젠더적으로 다른 위치에서 운동권 네트워크를 자전적 서사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감정 승인 구조의 젠더화된 배치를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례를 제공한다.[16] 『십 년 간』(1995)은 리더십 계보의 정당화와 자원 집중이 감정의 승인 과정을 통해 유지되는 '헌신의 플롯'을 제시하는 반면, 『푸르른 틈새』(1996)는 배제된 여성 주체의 경험과 레즈비언 욕망을 통해 승인되지 않은 정동들의 서사적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대의 플롯'을 제시한다.[17] 이때 본고가 '헌신'과 '연대'의 플롯을 대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자가 본질적으로 남성성을, 후자가 본질적으로 여성성을 대표한다는 도식을 전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16 본고에서 젠더는 텍스트 밖에 이미 주어진 정체성의 본질이라기보다, 감정 승인 장치에 접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접속 문턱으로 다루어진다. 다시 말해 남성 인물, 여성 및 레즈비언 인물 사이의 젠더적 차이는 특정 작가나 인물의 고정된 성격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돌봄·퀴어 욕망 등의 감정이 어떤 신체와 위치에게 할당되고 승인되는지를 드러내는 감정 승인 장치의 효과를 분석적으로 이름 붙인 것이다.

17 본 연구는 운동권 네트워크를 서사화한 1990년대의 다른 주요 작가들—김영현, 박일문, 공지영, 김인숙, 최윤—의 소설 텍스트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김영현과 박일문의 텍스트는 세대 정체성이나 내면적 고뇌에 집중해 조직 내부의 정동 구조를 드러내기 어렵고, 공지영의 텍스트는 운동권 경험과 서사 전개의 시간적 간극이 커서 네트워크 내의 정동 구조만을 재구성하기 어렵다. 김인숙의 텍스트는 주로 외부적 젠더 갈등에 초점을 두어 내부 권력 배치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 다만 최윤의 「회색 눈사람」(1992)은 운동권 내부에서 배제된 여성 주체의 경험을 재현한 선구적 서사로 보조적으로 참조한다.

수직적 헌신과 자기희생은 학생운동 조립체에서 남성 주체에게 과잉 배분된 대표 감정으로 승인되었고, 돌봄과 수평적 연대, 퀴어 욕망은 여성·레즈비언 인물에게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본고의 관심은 이러한 젠더화된 분배가 어떻게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장치가 소설 텍스트 속에서 감정 승인 플롯으로 어떻게 형식화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과 3장은 각각 방현석과 권여선의 텍스트를 분석하여, 텍스트에서 추출한 물질적 요소와 표현적 요소가 결합하며 특정 정동을 대표 감정으로 플롯화하는 과정을 밝힌다. 특히 3장에서 권여선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운동권 네트워크에서 비가시화되었던 감정 재생산의 수행과 퀴어 욕망의 흔적을 탐색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이러한 조립체 분석틀을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과 접속시켜, 젠더 수행이 감정 승인 구조에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리고 퀴어 욕망이 감정 승인 플롯을 교란·재배열하는 재조립적 감정 재생산 수행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2 ‘헌신’이라는 감정 승인 플롯의 형성: 『십 년 간』(1995)[18]

방현석의 『십 년 간』(1995)은 1970년~198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배경으로, 운동권 내부의 감정 승인 플롯을 서사화한다. 인혁당 사건, 동일방직 투쟁, YH노조 사건 등 실제 사건을 배치하면서, ‘헌신’이라는 감정이 중심 감정으로 부상하게 되는 방식을 그린다. 이때 ‘헌신’은 단순한 미덕이나 개별 선택이 아니라, 조직 유지와 계보 접속의 조건으로 승인되는 감정이다. 이 플롯 속에서 ‘헌신’은 수행 가능한 유일한 공적 감정으로 구조화되며, 돌봄이나 관계성과 같은 수행은 조직 바깥으로 밀려난다. 『십 년 간』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을 기록하기보다, 헌신이라는 감정이 정당한 형식으로 승인되고 반복 가능하게 배치되는 규칙을 보여준다. 방현석 자신이 학출 노동자로 운동 내부의 감정 승인 구조를 체험했던 주체라는 점에서, 이 텍스트는 감정 승인 구조를 내부자적 관점에서

18 본고에서 방현석의 『십 년 간 1-2』(실천문학사, 1995)은 이후 권수와 쪽수만 다음과 같이 (권:쪽수)로 표기한다.

복원하는 기획으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의 목적은 역사적 현실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데 있지 않고, 소설 텍스트의 플롯을 통해 학생운동 네트워크의 감정 승인 구조가 어떤 표준적 형식으로 조직되는지를 역추적하는 데 있다.

2.1 감정 승인 플롯의 물질적 기반과 표현적 장치 분석

『십 년 간』은 정준호, 천완수, 최석우의 관계를 축으로 전개된다. 정준호는 수도대학 지하 써클의 핵심 인물, 천완수는 노동 현장에 투신한 노동운동가, 최석우는 정치권과 지하 써클을 잇는 허브이다. 이들의 관계망은 운동 내부 감정 승인 플롯의 기본 구조를 형성한다. 본 절은 텍스트에 나타난 물질적 기반과 표현적 장치를 살핀다.

2.1.1 물질적 기반 분석

① 장소-인프라는 인물 접속을 매개하는 공간과 물적 자원, 그리고 그 운용 방식이다. 핵심 공간은 삼남중고 동창모임과 수도대학 지하 써클로, 두 장소는 인적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관문으로 기능한다. 이들은 시위 현장, 공장, 교회, 정치권 공간 등으로 확장된다. 특히 지하 써클은 검문, 심문, 침묵의 장면을 통해 은폐된 중심축으로 암시된다.

② 인적 자원과 허브는 조직의 유통 경로를 형성한다. 수도대학 지하 써클의 정준호를 중심으로 고규락, 백상태, 손연희 등이 결속하고, 허브 인물인 최석우가 개입하여 내부 위계를 우회하며 조직을 보강하는 유연한 접속 장치로 작동한다.

③ 운영 절차는 간접적으로 암시되는데, 리더의 직접 선발, 차등 접근, 비밀 유지라는 세 가지 규칙이 핵심이다. 탄압 국면에서 정보 누출이 조직 해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리더는 구성원을 직접 선발하고, 정보 접근을 제한하며, 비밀 유지를 조직의 생존 논리로 삼는다.[19] 그러나 내부 위계의 엄격함과 달리, 리더 간

19 김명인은 최근 회고록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서울대 학생운동 조직(1978~1981)의 경험을

회합이나 허브를 통한 지연 접촉은 비공식 경로를 형성해 위계를 우회한다.

④ 시간층은 접속을 조정하는 물질적 조건이다. 텍스트의 시간성은 시차효과(lead-lag)를 축으로, 공식-비공식의 조응과 세대적 지속성(수직), 조직 간 확산(수평)이 중첩되며 형성된다.[20] 리더-후배 라인이 접속을 직접 관리할 때 내부 시차는 압축되지만, 국가 탄압이 겹치는 순간 검거와 심문, 침묵의 연쇄가 리듬을 지연시킨다. 백상태-고규락-정준호의 계보는 후배의 규칙과 절차의 전승을 가능하게 하고, 최석우와 같은 허브는 노동 현장과 정치권으로 접속을 확장한다.

2.1.2 표현적 장치 분석

표현적 장치는 개인의 감정이 승인되어 집단적 서사로 전환되는 경로를 조직하며, 특히 서사가 개인의 위치와 감정 표현의 방향을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드러낸다. 표현적 장치는 집합행동이라는 물질적 행위를 인식 가능한 기호와 서사로 번역하는 매개로 작동한다.[21]

① 기호 체계는 군부독재 반대 시위의 구호·함성·노래·스크럼을 통해 집단을 호출하고 결속하는 표현적 장치로 기능한다. “유신헌법 철폐하라! 살인정권 타도하자!”(2:175)와 같은 명령형 구호는 ‘우리/적’의 경계를 세우며, 팔짱을 낀 밀집 대형은 동원의 규모를 시각화한다.[22] 충돌 국면의 맞고함은 두려움을 상쇄하는 집단 발화이지만, 사복 경찰의 투입으로 인해 시위 대열은 곧 해체된다.[23]

기술한다. 그 서술은 학생운동 조직의 폐쇄성과 비밀 유지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조가 된다.(『두 번의 계엄령 사이에서』, 돌베개, 2025, 109-241쪽, 참조)

20 마누엘 데란다는 조직의 형성과 변화가 중앙의 결정이 현장으로 이행되는 과정의 시차효과(lead-lag)에 의해 좌우된다고 본다. 규모가 커질수록 다양한 기관의 재량과 협상이 얽혀 실행이 지연된다는 것이다.(마누엘 데란다, 김영범 역, 앞의 책, 2020, 2장 참조). 이를 확장하면, 공식 구조와 비공식 허브의 조율 정도가 자원 동원과 실행 속도를 좌우하는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십 년 간』의 시간층 역시 세대적 지속과 수평 확산을 통해 규칙과 절차가 재생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21 마누엘 데란다, 김영범 역, 앞의 책, 2020, 106-107쪽, 참조.

22 “스크럼을 짠 한 떼의 학생들이 현관 밖으로 몰려나왔다. 한 줄 두 줄 세 줄…… 그러나 그 줄은 일곱 줄이 끝이었다.”(2:175)

이후 분신이나 사망과 같은 임계 사건 이후에는 구호가 노래로 확장되어 집합의 지속 시간을 연장한다.[24] 이 언어의 리듬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1:227)와 같은 노동 현장의 구호와 맞물려, 대학 시위와 노동운동의 정서를 교차한다.[25] 요컨대 시위 장면의 언어와 형식은 집합행동의 물질적 행위를 ‘우리의 가치·규모·결속’을 표상하는 기호로 변환하며, 감정 승인 플롯이 작동할 수 있는 표현적 기반을 형성한다.[26]

② 담론은 운동 참여 주체의 마음가짐과 실천 방향을 규정하는 규범으로 작동한다. 고규락은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1:231)라 말하며, 실천의 감정을 윤리적 의무로 전환한다. 그는 또한 “극소수의 사람들은 흥청망청 돈을 뿌리고 대다수의 민중들은 가난과 무권리”(1:242)에 시달린다며, 불평등 구조를 비판하고, 노동자 연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긴급조치 9호 아래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억압되자 현실 인식은 ‘침묵’으로 고착되지만,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부당한 체제에 맞선 윤리적 언어가 다시 호출된다.[27] 이 담론은 반유신·반독재, 반자본, 계급투쟁의 프레임 위에서 작동하며, ‘노동자 항쟁’은 학생운동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는 참조점이 된다. 결국 이러한 담론 구조는 윤리적 책무감의 감정을 윤리적 의무로 승인하며, 감정 승인 플롯의 서사적 기반을 이룬다.

---

23 “사복들은 연좌하고 있는 학생들의 어깨와 머리를 밟고 건너뛰며 가운데로 돌진했다. 선언서를 낭독하던 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복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사복들이 나머지 시위대를 닥치는 대로 낚아채기 시작했다. 연좌 중이던 대열은 금방 허물어져갔다.”(2:176)

24 “검푸른 바닷가에 비가 내리면 /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 (…) /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그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오 /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2:178)

25 “청계천 6가 평화시장 앞길에서 전태일이란 스물두 살 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유언을 남긴 채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근로기준법』책자를 껴안은 채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는 요지였다.”(1:227-228)

26 마누엘 데란다는 찰스 틸리의 사회운동 이론을 따라, 18-19세기 영국의 사회운동이 폭력 시위·데모·유인물 등의 행위를 통해 집단의 규모, 결속, 정당성을 표현했다고 본다.(마누엘 데란다, 김영범 역, 앞의 책, 2020, 106-107쪽).

27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아직도 부족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너무도 많이 남았다고 말하지 못했다.”(2:261)

③ 응시·표시·인증의 체계는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곧 누가 감정 승인 구조에 접속할 자격을 판정한다. 이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정통 계보에 접속하기 위한 승인 메커니즘이다. '응시'는 리더나 상위 계보의 시선을 감당하는 자리, '표시'는 그 시선을 향해 수행적 행위를 드러내는 몸의 표현, '인증'은 그것이 계보 내에서 승인되어 자격이 부여되는 과정이다. 예컨대 "선언서를 낭독하던 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복의 손아귀에 들어갔다"(2:176)라는 장면에서, 선언 낭독은 말하기 이상의 응시-표시 자리다. 발화자는 정통 감정을 대리 수행하고, 현장 집단은 그 자격을 확인한다. "팔짱을 낀 채 연좌한 학생들"(2:176)의 몸짓과 구호·노래의 선창과 응답은 이러한 응시·표시·인증의 회로를 가동시켜 참가자의 위치를 시험한다. 또한 도서관으로 밀려난 뒤 부르는 추모의 노래[28]와 같은 추모·행진의 의례적 행위는 계보 접속을 인증하는 일종의 배지처럼 기능한다. 요컨대 응시·표시·인증의 회로는 운동의 규율을 시각적으로 재현하며, 감정 승인 플롯의 자격 배분 장치로 작동한다.

④ 영웅/순교 서사와 계보 서사는 표현적 장치의 구조적 핵심이다. 이 두 서사는 감정 승인 플롯을 구조화하며 개인의 충격과 슬픔을 집단적 감정으로 전화시킨다. 고규락의 사형과 백상태의 분신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애도의 감정을 정치적 계승의 언어로 전환하는 계기다. '살인정권 타도하자'는 구호의 합창, 어깨걸기와 행진 같은 신체 퍼포먼스는 애도의 정서를 헌신의 감정으로 바꾸며, 그 과정에서 강하게 승인되는 감정은 자기희생의 수용이다.[29] 영웅/순교 서사는 개인의 극단적 감정 수행이 공동체의 규범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계보 서사는 그 수행이 어떻게 조직적 접속과 전승으로 제도화되는지를 보여준다. 정준호가 "끝까지 지킨 것은 고규락과의 관계"(2:95-96)라고 말할 때, 감정 승인 구조 자체에 대한 접속을 지속함으로써 자신을 후속 주체로 위치시킨다. 또한 고규락과 백상태의 흙을 서랍에 간직하는 장면은[30], 기억이 상징을 넘어 조직적 계승의 실질적

28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2:178)

29 민주화 운동에서 열사(烈士)는 능동적 열(烈)과 수동적 '희생'이 겹친 호명으로,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숭고와 공포를 동반한 도덕적 고양의 장치로 작동한다.(천정환, 「열사의 정치학」, 『숭배, 애도, 적대』, 서해문집, 2021, 36-38쪽, 54-56쪽, 참조)

30 "준호는 첫번째 맨 윗서랍에 간직되어 있는 한 움큼의 흙과 백상태의 마지막 흔적 위에 뿌

매개로 작동함을 암시한다. 결국 이 두 서사는 개인이 감정의 수행을 조직적 계승으로 전환시켜, 승인 가능한 감정의 양식과 지속 조건을 구축한다. 감정 승인 플롯은 이렇게 특정 감정의 반복 가능성과 정당성을 역사화하는 서사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2.2 '헌신'이라는 감정 승인 플롯의 형성

『십 년 간』의 서사는 학생운동의 과정에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과정을 기록하기보다, 특정 감정이 '승인 가능한 형식'으로 조율되는 절차를 반복적으로 배열한다. 플롯은 대체로 ① 죽음·구속·고문과 같은 충격 사건이 발생하고, ② 합창·구호·행진·어깨걸기 등의 집단 의례가 그 충격을 흡수하며, ③ 그 의례가 애도를 '계승'으로 번역하고, ④ 결국 '헌신'이 운동 윤리의 정당한 감정으로 승인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 이때 백상태-고규락-정준호로 이어지는 수직 계보는 헌신이 반복 승인되는 핵심 경로를 제공하고, 정준호-최석우-천완수로 이어지는 수평 네트워크는 동지애를 승인하는 보조 리듬을 형성한다. 반면 여성 인물들은 돌봄과 정서 유지노동을 수행하면서도 '헌신/동지애'의 공적 형식으로 승격되지 못해 플롯에서 주변화되며, 이러한 배치가 감정 승인 규칙의 젠더 비용을 드러낸다. 후반부 여성 노동자 노조의 확장 장면은 '헌신' 중심 승인 규칙이 '연대' 중심 규칙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암시하지만, 그 가능성은 완결되지 않은 채 플롯 바깥의 정동으로 남는다. 본 절은 『십 년 간』의 서사에서 물질적 요소(장소·접속·절차·시간)와 표현적 요소(기호·담론·서사)가 어떻게 결합해 특정 감정이 승인되는 위와 같은 플롯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핀다.[31] 아울러 젠더는 접속 문턱(threshold)[32], 자격 판정, 돌봄/정서 유지노동의 분배[33], 상징 자본(열사화 등)의

려졌던 그것을 생각했다."(2:260)

31 피터 브룩스(Peter Brooks)는 플롯을 욕망의 긴장과 종결을 향항 움직임으로 설명한 바 있다.(피터 브룩스, 박혜란 역, 『플롯 찾아 읽기』, 강, 2011) 본 연구는 브룩스의 '결여' 중심의 욕망 개념 대신, 들뢰즈의 '욕망의 배치' 개념을 참조한다. 감정 승인 플롯은 종결로 수렴하는 욕망의 내러티브가 아니라, 욕망의 흐름인 정동이 다양한 접속을 통해 승인·배치되는 과정을 분석하는 틀이다.

배당에서 이 경로를 조절하는 주요 변수로 작동한다.

2.2.1 ‘헌신’의 감정 승인과 계승의 플롯—감정 승인 구조의 형성

『십 년 간』에서 ‘헌신’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감정이 시간 속에서 승인되는 플롯의 과정이다. 백상태-고규락-정준호로 이어지는 수직 계보는 이 감정이 어떻게 서사 속에서 형성되고 반복되는 핵심 축이다. 고규락의 사형 소식과 백상태의 분신 이후 이어지는 시위 장면에서 합창·어깨걸기·행진의 장면이 병치된다. 이는 감정의 전이를 설계한 장치로, 죽음의 충격이 실천의 결의로, 애도가 헌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헌신은 주체의 미덕이 아니라, 감정이 승인되는 구조 속에서 시간적으로 배치되는 감정의 형식이다.[34] 즉 감정의 흐름이 집결과 행진의 물질적 리듬과 구호와 합창의 상징적 리듬의 결합을 통해 승인된다.

이 감정의 이동은 물질적 조건(선발·차등 접근·비밀)과 규범적 담론이 교차하는 순간에 발생한다. 고규락의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1:231)라는 선언은 이러한 구조의 윤리적 코드를 압축적으로 제시되며, 구호·노래·행진 같은 표현적 장치가 이를 반복 수행한다. 헌신은 내면에서 솟는 감정이 아니라, 시간의 압축과 반복의 리듬 속에서 수행적으로 형성되는 감정 승인 플롯의 결과다. 이러한 감정의 전이는 『십 년 간』 전체의 플롯 구조를 지배한다. 서사 전체는 애도에

32 여기서 접속 문턱(threshold)은 접속과 승인의 최소 조건을 뜻한다. 개념의 정의와 출처는 3장의 각주 37, 43을 참고할 것.

33 본고는 돌봄·정서 유지노동을 감정 재생산의 현장 실행으로 본다. 두 용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3장 각주 39에 제시한다.

34 헌신(devotion)은 신에게 자신을 바치는 행위로 자발적 투신을 가리킨다. 헌신은 자발적 감정 수행으로 고결함과 숭고함의 상징으로 계승된다. 반면 희생(sacrifice)은 자발성과 타의성 모두 가능하고 타자에 의해 강요되기도 한다. 희생은 때때로 비극, 소외, 타자화의 상징이 된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에서 단어의 역사적 의미 변화를 살펴보면, devotion(헌신)은 ‘자기를/무엇인가를 바치는 행위·상태’라는 주체적·능동적 의미를 가지며, sacrifice(희생)는 행위(능동)와 희생물(수동)이라는 두 축으로 구별된다.(Oxford English Dictionary, s.v. “devotion”, s.v. “sacrifice”) 특히 민주화운동에서의 죽음은 ‘희생’뿐 아니라, 적극적인 열(烈)로 해석되는 중층적 양상을 띤다.(천정환, 앞의 책, 2021, 36-38쪽, 참조)

서 헌신으로, 슬픔에서 실천으로 감정이 전환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정준호의 서사는 이러한 헌신의 플롯이 인물의 내면을 통해 재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정준호의 "끝까지 지킨 것은 고규락과의 관계"(2:95-96)라는 고백은 계보적 접속의 언어이며, 헌신이 승인되는 통로를 재현한다. 정준호의 내면은 자율적 의식의 장이 아니라, 이미 조직의 감정 승인 구조가 내면화된 장치로 작동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따라서 고규락의 죽음은 단순한 애도의 대상이 아니라, 헌신의 플롯이 요구하는 신호로 기능한다. 정준호는 이를 슬픔이나 회한의 감정으로 경험하지 않고, 헌신과 계승의 감정으로 전환함으로써 감정의 승인 과정을 재연한다.

감정 승인 플롯은 반복과 생략의 리듬을 통해 형식화된다. 고규락과 백상태의 죽음은 상세한 묘사 없이 간략히 전달되고, 그 공백은 시위의 집단적 리듬으로 메워진다. 이러한 생략과 삽입의 교체는 감정의 방향을 제어하는 플롯의 통제 장치로 작동한다. 슬픔은 말해지지 않음으로써 봉인되고, 그 침묵의 자리에는 헌신이 들어선다. 감정의 억제와 반복은 플롯의 시간을 의례적 순환의 리듬으로 재구성하며, 바로 이 순환이 헌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구조적 조건이 된다. 결국『십 년 간』의 플롯은 슬픔을 봉인한 채 실천의 감정으로 나아가며, 애도의 정서를 헌신으로 변환하는 감정 승인 구조를 형성한다. 이때 플롯은 감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기록하는 형식이 아니라, 감정의 경로를 설계하고 통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2.2.2 '동지애'의 감정과 교차되는 플롯—감정 승인 구조의 수평적 확장

『십 년 간』은 '헌신'이라는 수직적 감정 플롯과 함께 정준호-최석우-천완수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감정 관계를 보여준다. 이들은 명령과 복종이 아닌 우정과 호혜로 연결되며,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감정 승인 플롯을 수평적으로 확장한다. 최석우는 만남을 주선하고,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조직 간 허브로 작동하며, 동창·지연·학번 공동체 등 사적 친교망을 통로로 하여 사람·장소·자원을 연결한다. 이로써 감정 승인 구조는 수평적 접속을 통해 '동지애' 또한 승인하게 된다. 또한 천완수는 대학 중심 운동을 외부 노동 현장과 접속시키며 헌신의 플

롯을 연대의 서사로 확장한다. 이 수평축은 “엉뚱한 삼총사”(1:20), “형님”, “아우”, “내리사랑”(1:70) 등 우정과 가족적 언어로 호명된다.

그러나 이 수평축의 물질적 기반은 남성 동창 네트워크에 기대고 있으며, 감정의 흐름은 남성 간의 신뢰와 의리라는 젠더화된 인프라 위에서 작동한다. 결국 이 수평적 동지애는 공식 권력 구조의 핵심에 도달하지 않지만, 남성적 연대 감정을 반복 승인함으로써 젠더 질서를 재생산한다. 요컨대, 『십 년 간』의 플롯은 수직적 헌신의 플롯과 수평적 동지애 플롯이 교차하지만, 두 플롯 모두 젠더적 코드에 의해 조정되고 통제된다. 따라서 동지애 플롯은 헌신 플롯의 대안적 감정 경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헌신 플롯의 감정 승인 구조를 측면에서 보강하고, 젠더적 편향을 은폐하는 보조 장치로 작동한다.

2.2.3 접속 문턱으로서의 젠더: 플롯에서 밀려난 여성들

『십 년 간』에서 젠더는 단순히 인물의 속성이 아니라, 감정 승인 구조에 진입할 수 있는 ‘접속 문턱’으로 작동한다. 감정은 수행 이전에 이미 젠더화된 규칙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며, 이는 감정 승인 구조의 핵심 배제 메커니즘이다. 박순분과 손연희는 이러한 문턱에 가로막힌 전형적 사례다.

박순분은 노동운동을 통해 계보에 접속하지만, 공안검사 이서익과의 관계로 ‘오염’ 판정을 받으며 조직의 핵심에서 배제된다. 그의 감정은 ‘불순한 감정’으로 독해되고, 최석우는 “너 더 이상 우리 친구 아이다”(2:138)라며 공적 자격을 박탈한다. 이후 “나에게 남은 미래는 무엇”(2:203)이라는 박순분의 자책과 슬픔이 전달되지만, 서사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주변화한다. 그의 정동은 감정 승인 구조 밖으로 밀려난 비승인된 잔여물로 남는다. 특히 박순분은 후반부 「마지막 겨울」 장에서 YH사건과 동일방직 똥물 사건을 재현하여 서술할 때 마지막으로 등장하지만, 그는 핵심 인물로 기능하지 않고 서사의 주변부로 배치되며 서사 전체의 플롯에서 배제된다. 다시 말해 박순분은 정준호의 첫사랑이라는 설정으로 서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여공 노조활동의 주축으로 위치하다가 이서익과의 만남 이후 ‘헌신’의 플롯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다.

손연희의 경우도 유사하다. 그는 지하 써클의 주변부에 위치해 관계를 매개

하고, 위기 상황에서 정준호를 위한 정서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고규락의 사형 소식 직후 정준호가 좌절로 절망할 때, 손연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긴 채 그 충격을 공유한다.

> “준호 씨,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고문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자기에 대한 자포자기, 인간에 대한 혐오, 그것이 그들이 노리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순간 무너질지라도 그 다음, 굴복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야. 그것이 이기는 거야.”
>
> “그럼 넌, 육체의 고통을 못 이겨서 개새끼처럼 원수의 자식 발 아래서 기어다닌 나를 용납할 수 있어?”
>
> “용납할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있어.”
>
> (…)
>
> “나 오늘 너를 안고 자고 싶다. 그냥 안고.”
>
> (…)
>
> 그들의 몸은 뜨거워져 갔고 여인숙의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그칠 줄 몰랐다.(2:117-118)

이어진 정준호와 손연희의 잠자리는 그 충격을 우회적으로 안정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이후에도 손연희는 하계에 남은 정준호의 할아버지의 돌봄을 떠맡는 등, 조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돌봄·정서 유지노동을 수행한다.[35] 그런데 손연희의 이런 행위들은 결코 ‘헌신’으로 명명되지 않는다. 그의 돌봄은 승인되지 않은 감정 수행으로 남는다. 서사 속에서 그의 감정이 승격되지 못한 채 주변부로 사라지는 것으로 볼 때, 감정 승인 구조는 돌봄·정서 유지노동을 비공식적으로도 승인하지 않는다. 박순분과 마찬가지로 손연희 역시 후반부 「마지막 겨울」 장에서 정준호의 할아버지를 돌본다는 설명을 끝으로 서사 속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35 신혼 첫 밤은 경주에서 보냈다. 손을 잡고 나란히 누웠을 때 할아버지의 문제를 먼저 꺼낸 것은’손연희였다. “조부님은 어떻게 할 건데?” / 할아버지는 한사코 하계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다.(…) “많이 생각했는데, 내가 하계에 남아서 당분간 조부님 모실게.” 뜻밖이었다.“(2:210-211)

않는다.

결국 『십 년 간』의 플롯은 돌봄과 같은 수행의 정동을 공적 감정으로 승인하지 않으며, 젠더화된 문턱을 통해 여성 인물들을 공적 감정 체계 바깥으로 배치한다. 이들의 '사라짐'은 플롯의 부차적 효과가 아니라, 감정 승인 구조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드러내는 서사적 장치다. 박순분과 손연희는 배제된 자리에 놓임으로써, 감정 승인 플롯의 젠더적 편향을 가시화하는 결정적 결락의 표지로 기능한다.

2.2.4 감정 승인 규칙의 젠더 비용—플롯의 반복과 감정 승인의 재생산

박순분과 손연희의 사례를 살펴보면, 『십 년 간』의 감정 승인 플롯은 명확한 작동 규칙을 따른다. 핵심 접속(선발·비밀·차등 접근/허브)과 의례적 표시(영웅/순교·계보·선창·행진)가 조율될 때 감정은 '헌신'(수직축) 혹은 '동지애'(수평축)로 승인된다. 반대로 접속이 끊기거나 조율이 어긋날 경우, 감정이 되지 못한 정동은 '오염' 혹은 '비자격'으로 간주되어 공적 승인에는 이르지 못한다.[36] 이때 의례화가 결정적 문턱으로 기능한다. 선언·낭독·합창·행진·유골 보관 등은 누가 말하고, 무엇을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를 판정하는 장치다. 접속과 의례 표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애도는 계승으로, 계승은 실천으로 번역되며, 감정은 '헌신/동지애'라는 공적 형식으로 승인된다. 그러나 이 구조 안에서 젠더는 승인 조건을 규정하는 핵심 문턱이다. 정서 유지노동은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지만, 서사에서 비가시적인 노동으로 처리되어 승인되지 않는다.[37] 반면 위험을 감수하고 수행한 남성 계보는 열사화와 의례를 통해 상징 자본을 획득한다. 결과적으로 여성

36 박순분은 대학에 입학한 정준호에게 조직적인 학생운동에 참여의 투지와 용기를 준다. 특히 박순분의 공장 노조 활동 등은 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손연희 역시 고규락의 죽음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정준호의 가족을 돌보는 일을 수행한다.

37 물질적 요소로서 신체, 시간, 에너지는 관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자원이지만 항상 부족하다. 특히 관계는 단순 대화를 넘어 돌봄, 조언, 정서적 지지를 포함하며, 많은 공동체에서 이러한 유지 노동은 불균형적으로 여성에게 분배된다.(마누엘 데란다, 김영범 역, 앞의 책, 2020, 101-102쪽, 참조)

은 승인 구조에 기여하면서도, 승인 자격은 얻지 못한 채 주변화된다. 요컨대『십 년 간』의 감정 승인 플롯을 통해 운동의 윤리를 구성하지만, 그 윤리는 젠더적 불균형 위에서 반복 재생산된다. 감정 승인 질서는 윤리를 형성하는 동시에, 그 비용을 젠더적으로 은폐하는 서사적 장치로 작동한다.

2.2.5 '연대'의 징후—플롯 밖의 정동들

텍스트 후반부에서 암시되는 여성 노동자 노조의 확장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지금의 노조는 과거의 노조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합원들의 높은 참여와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여자들끼리 해봐야 뭘 얼마나 하겠느냐고 애써 무시하였던 회사가 대책수립에 나섰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 여성집행부는 아무런 개인적 야망이 없었던 것이다. 아무런 욕심이나 야망이 없는 상대만큼 무섭고 난감한 상대가 없다는 사실을 회사는 뼈아프게 깨달아야 했다.(2:200)

이 장면은 감정 승인 규칙이 장소와 절차의 변화에 따라 재편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 지하 써클의 폐쇄적 인프라가 공장·기숙사·조합 사무실 같은 공개적 공간으로 바뀌고, 표현도 노동권 담론과 회의·결의·교섭 같은 절차적 언어로 전화하면서, 감정 승인 역시 '헌신' 중심에서 '연대'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드러낸다.

이 새로운 질서에서는 조직 유지와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의 비공식 부담이 아닌, 조합 절차를 통해 공적으로 분담·가시화된다. 여성의 정동은 '희생'이 아닌 '연대'로 승인될 수 있는 조건을 획득하며, 감정 승인 구조 자체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한다. 비록 이 장면은 서사 속에서 완결되지 않고 암시적 수준에 머물지만, 바로 그 미완의 정동이 기존 플롯의 경계를 넘어서는 출구로 기능한다. '헌신'의 서사적 규율을 넘어 '연대'라는 감정이 승인될 수 있는 새로운 서사 장치의 징후가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 미완의 정동은『십 년 간』의 감정 승인 플롯이 닫힌 체계로 머물지 않고, '연대'라는 감정이 새로운 승인 규칙으로 구성될

가능성을 예고한다. 따라서 『십 년 간』은 감정 승인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 경계 바깥에서 감정 승인 구조의 재편을 사유하게 한다.

3 '헌신'의 플롯 해체와 '연대'의 가능성: 『푸르른 틈새』(1996)[38]

권여선의 『푸르른 틈새』(1996)는 1980년대 학생운동의 기억을 개인의 내면적 경험과 젠더 수행의 층위에서 재구성한 텍스트이다. 본고가 주목하는 핵심은, '헌신'이라는 감정 승인 플롯이 어떻게 중단되고 그 자리에 '연대'의 감정이 재배치되는가 하는 지점이다. 『푸르른 틈새』의 주인공 손미옥은 대학 시절 시위 현장에서 공포와 불안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끝내 조직의 중심에 완전히 소속되지 못한다. 이후 그는 조직이 승인한 '헌신'의 감정을 수행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인다. 그러나 바로 이 이탈의 자리에서 손미옥은 관계의 돌봄, 몸의 회복, 레즈비언 욕망이라는 비가시적 감정들을 새롭게 감각하며, 다른 종류의 감정 승인을 시도한다. 이때 그의 감정은 더 이상 집단의 윤리를 따라 정당화되지 않으며, 저강도 시간과 일상의 행위를 통해 서서히 재구성된다. 플롯은 감정을 단지 표현하는 장치가 아니라, 감정의 경로를 설계하고 통제하며, 그 흐름을 재배열하는 서사적 기술로 작동한다. 권여선은 운동의 실패 이후에도 남은 감정의 잔여를 통해, 승인되지 못한 정동들이 새로운 윤리적 질서로 이어질 수 있음을 탐색한다. 이 장은 감정 승인 구조가 어떻게 조직되고, 그 승인 질서의 해체와 변형이 어떤 서사적 과정을 거쳐 수행되는지를 플롯의 형식을 통해 분석한다. 이어서 감정 승인 플롯이 어떤 물질적 조건과 표현적 장치의 결합을 통해 작동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추적할 것이다.

3.1 감정 승인 플롯의 물질적 기반과 표현적 장치 분석

3.1.1 물질적 기반 분석

① 장소-인프라는 인물의 접속을 매개하는 공간과 물적 자원, 그리고 그 운용 방

38 본고에서 권여선의 『푸르른 틈새』(살림, 1996)은 이후 면수만 괄호 안에 표기한다.

식이다. 핵심 공간은 시위 현장과 집으로, 두 장소는 서로 다른 감정 리듬을 대조적으로 형성한다. 시위 현장은 경찰의 감시와 폭력적 충돌이 전제된 고강도 공간으로, 구호·대열·행진의 리듬이 감정을 통제하고 '헌신'의 감정을 수행하게 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반면 집은 시위 이후의 피로가 해소되고 상실의 감정이 회복되는 저강도 공간이다.[39] 휴학 이후 대학과 거리를 둔 공간인 집은 돌봄과 위로의 감정을 매개하며, 고강도 공간에서 배제된 감정이 복귀할 여지를 남긴다.

두 공간은 반복적으로 교차 배치되며, 공적 감정 승인 구조의 문턱을 드나드는 접속의 리듬을 형성한다. 이러한 공간적 대비는 '헌신-연대'라는 감정 승인 플롯의 방향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토대다.

② 인적 자원과 허브는 조직의 유통 경로를 형성한다. 『푸르른 틈새』에서 선후배 라인으로 조직된 허브는 연락·정보·발언 순서를 배분하는 조정 장치로 작동한다. 허브에 인접한 인물은 빠른 경로로 자원에 닿지만, 주변부 인물은 느슨한 접속만 허용된다. 차종태는 지하 써클과 공식·비공식 경로를 중계하는 핵심 허브로 제시되며, 손미옥은 호명과 동행을 통해서만 시위·농활·공활 등 주요 활동에 참여한다.[40] 텍스트는 특정 인물만 아는 회합의 시공간, 호출의 편향, 주변 인물에게 전가되는 보이지 않는 돌봄·정서 유지노동을 대비해 보여준다.[41] 또한 노미

---

39 강도(intensity)는 질 들뢰즈가 『차이와 반복』(김상환 역, 문학과지성사, 2004)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온도나 압력처럼 분할해도 값이 보존되지 않는 집약적 양(intensive quantity)을 뜻한다. 강도는 가산적 축적이 아니라 문턱과 기울기에서 발생하는 상태의 분기(phase transition)로 현실화된다. 마누엘 데란다는 강도를 조립체의 행동을 규정하는 제약의 밀도와 속도로 해석하며, 사회적 조립체의 경우에도 강도의 분포에 따라 행동의 가능성이 달라진다고 본다.(데란다, 『새로운 사회 철학』, 2020, 2장, 57-58쪽 참조) 본고는 이러한 개념을 따라 장소의 강도를 접속의 문턱(threshold of connectivity)으로 이해한다. 즉 접속이 성립하거나 단절되는 연결 가능성의 차이로 이해한다. 따라서 고강도 공간은 통과와 충돌의 리듬을, 저강도 공간은 회복과 재생의 리듬을 유도하는 물질적 조건이 된다.

40 손미옥은 시위, 농활, 공활, 문예조직 등 주요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차종태를 통해 접속한다. 그는 지하 써클과 공식·비공식 경로를 매개하는 핵심 허브로 기능한다.

41 감정 재생산은 집단 유지에 필요한 정서의 안정·완충·회복과 관계의 신뢰 유지를 포함한다. 돌봄·위로·분위기 조성 등 일상적 정서 지원은 노동과 공동체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수행이다.(알바 갓비, 전경훈 역, 『친밀한 착취—돌봄노동』, 니케북스, 2024, 13-15쪽) 정서적 필요와 이를 충족하는 방식은 계급·젠더·인종 등 권력관계 속에서 역사적으

혜의 “웃음소리와 수다”(76)나 손미옥·정수진·노미혜의 가사 협업 장면은 돌봄·정서 유지 노동의 젠더화된 분배를 암시하며, 핵심 허브가 남성 인물로 수렴함을 드러낸다.[42]

③ 운영 절차는 모집-배치-규범-평가의 과정을 통해 작동한다. 모집 단계에서 지하 써클은 신입생에게 암묵적으로 소개되고, 선배들은 노래와 구호를 가르쳐 신체 리듬을 표준화한다. 배치는 호명과 소개를 통해 이루어지며, 손미옥은 차종태의 중개를 거쳐 시위·농활·공활 등 활동에 순차적으로 편입된다. 규범은 표정과 어조뿐 아니라 신체 리듬까지 통제한다. 손미옥이 시위 전에 술로 불안을 달래려 하자, 차종태가 이를 나무라며 교정하는 장면[43]은 규범이 표정·어조를 넘어 몸의 리듬까지 요구함을 보여준다. 평가 단계에서는 그 리듬에 맞지 않는 몸이 쉽게 이탈자로 분류된다. 손미옥이 공장 활동에서 신체적 한계를 드러내고 무력감에 빠지는 장면은 이러한 절차의 결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44]

④ 시간층은 압축 시간과 지연 시간으로 구성된다. 압축 시간은 시위·집회·해산 등 공적 활동이 밀집된 고강도 구간으로, 구성원에게 신체적·행위적 조율을 요구한다. 반면 지연 시간은 시위 이후의 휴식·회복의 흐름으로, 휴학 결단처럼 완충과 이탈의 리듬을 형성한다. 텍스트는 이 두 리듬을 교차 배치함으로써 공적 동원과 사적 회복이 다른 시간 감각 위에서 작동함을 드러낸다. 장소의 강도, 허브의 배분, 절차의 형식화, 그리고 시간의 분절이 결합해 조직과 개인 사이의 접속 문턱(threshold)을 형성한다. 이 문턱은 시위의 리듬에 적응하는 몸과 그렇지 못한 몸을 가르며, 후자는 돌봄·정서 유지노동으로 밀려나거나 조직에서 이탈하

로 구성되며, 그에 따라 감정 재생산의 물질적·표현적 역할도 달라진다. 본고는 감정 재생산의 현장 수행을 ‘돌봄·정서 유지노동’이라 부른다.

42 “우리 셋은 요리를 하거나 설거지를 할 때 가장 사이가 좋았다. 수진이 평소의 공격성을 감추고 미혜가 어리광반 아양반으로 일관하던 태도를 버리는 것은, 오로지 함께 가사일을 할 때뿐이었다.”(80)

43 “미옥아,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122)

44 차종태가 직접 말을 아껴도, 손미옥은 그의 시선과 평판을 민감하게 의식한다. “종태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나는 종태가 다방을 나서면서 짧게 탄식했던 것을 기억한다. 직업소개소를 찾아가는 동안, 나는 나를 조금도 믿고 있지 않은 종태의 마음을 아주 따갑게 느꼈다.”(132)

는 방식으로 비가시화된다.[45]

3.1.2 표현적 장치 분석

① 기호 체계는 시위의 구호·노래·행진을 통해 감정을 규격화하고, 개인의 리듬을 집단의 박자에 맞추는 표현 장치로 기능한다.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39)와 같은 반복 구절은 동일화의 리듬을 형성하며, 구호는 말보다 강세와 호흡으로 작동해 신체와 감정을 동기화한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102) 같은 발화는 내용보다 리듬으로 작동하여 참여의 강도를 측정하게 한다. 이때 이탈이나 망설임은 즉시 비표준으로 인식된다. 요컨대 시위의 기호는 언어를 넘어 신체를 규율하는 리듬적 장치로, ‘헌신’의 감정을 승인하는 플롯의 표현적 기반을 이룬다.

② 담론은 정치 조직을 둘러싼 발화 규칙과 감정 표현의 허용 범위를 규정한다. 『푸르른 틈새』에서 지배적 담론은 ‘정치적 주체는 투쟁해야 하며, 강인해야 한다’는 명제로 요약된다. 이러한 강인함은 차종태의 몸에 형상화된다. 그는 시위와 농활에서 피로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유지하며[46], 조직의 규범을 체현하는 인물로 제시된다. 손미옥은 이에 조응하기 위해 중성화된 제스처를 취하지만, 언제나 미달되는 자의식을 느끼며 “더 강한 어른이 될 수 있기를”(92) 되뇌인다.[47] 반면 노미혜는 이 담론에 접속하지 않고, 치장과 유혹, 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여성적 코드’[48]를 수행한다. 텍스트는 이 코드가 돌봄·욕망·연애를 사적

45 문턱(threshold, 한계점)은 질 들뢰즈가 강도(intensity)와 함께 제시한 개념으로, 상태나 흐름이 전환되는 임계 지점을 뜻한다. 데란다는 이를 외부 자극이 작동하기 위한 내부 조건으로 설명하며, 접속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최소 조건으로 해석한다.(마누엘 데란다, 김영범 역, 앞의 책, 2020, 42-43쪽)

46 “종태도 많이 울고 다닌 얼굴이었다. (…) 지저분해진, 지치고 배고픈 얼굴……. 그러나 종태는 여전히 활기에 가득 찼다.”(112)

47 손미옥은 “여성적이고자 하는 욕망과 중성적이고자 하는 욕망”(79) 사이에서 스스로를 조정하며, “독립된 어른”(77)이 되기를 갈망한다. “독립된 어른이 되기를 갈망했던 또 하나의 나는, 나긋나긋한 여성스러울 못지않게 그 대척점인 중성적 견고함에도 큰 비중을 두었다.(…) 이런 시선들은 내 안에, 내숭을 떠는 여자에 대한 혐오를 심어 놓았다.”(77-78)

감정으로 분류하고, 친밀성과 퀴어 욕망을 오염된 감정으로 배제하는 담론적 질서를 드러낸다. 결국 '강인함'의 담론은 감정의 공적 승인 범위를 결정하고, 여성적 수행을 사적인 것으로 주변화한다.

③ 응시-표시-인증 체계는 '누가 누구를 무엇으로 보게 만드는가'를 결정하는 가시화 장치다. 응시는 호명과 평가를 통해 시선을 조직하고, 표시는 그 결과로 부여되는 역할·평판을 뜻한다. 인증은 이 표시를 근거로 발화권과 절차 통과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다. 이 체계는 접속의 문턱(threshold)을 형성하며, 손미옥은 농활·공활·시위 수행 전반에서 차종태의 호명과 평가를 응시의 기준으로 삼는다. 그는 인증 받지 못한 감정과 수행을 스스로 검열하며 "가치를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지 못한"(160) 죄의식을 내면화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적 코드'는 오염 표시로 분류되어 발화권과 절차 참여가 제한되지만, 사적 관계에서는 매력 자본으로 작동한다. 요컨대 응시는 대상을 호명하고 표시를 부여하며, 인증은 그 표시를 근거로 권한을 배분하는 회로로 기능한다. 이 젠더화된 체계는 표준화된 남성성에 적응한 신체·발화를 승인하고, 다른 감정 수행을 비가시화한다.

④ 서사는 '실패의 서사'와 '대안의 서사'가 병렬로 배치되어 감정 승인 플롯의 전환을 이끈다. 공활 포기 이후 손미옥은 대학 네트워크와 단절하고 칩거하며, 실패의 원인을 "육체의 나약함"(161)과 "내 몸에 대한 죄의식"(160)으로 돌린다. 이는 "미옥인 너무 약해"(91), "왠지 불안하더라"(92)와 같은 평가와 맞물려, 조직의 리듬에 맞지 않는 몸을 개인의 결함으로 서사화하는 장치다. 즉, 실패의 서사는 접속의 실패를 자기비난의 감정으로 조율한다. 반면 휴학기 서사는 돌봄과 정서 유지 노동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계성을 구성한다. 손미옥이 실직한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키며 식사를 준비하는 반복은 돌봄의 루틴을 형성하며, 부녀 관계는 그 안에서 조정되고 회복된다. 이러한 '저강도 시간'의 서사는 대학 네트워크의 고강도 리듬과 대비되며, 감정의 회복과 재접속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마

48 '여성적 코드'는 유혹·치장·친밀성 관리 등 수행적 표시를 통해 구성되는 여성성의 양식을 가리킨다. 이는 성녀/창녀의 이분법적 미소지니(misogyny) 체계 속에서 오염된 감정으로 분류되기 쉽다.(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52-53쪽) 또한 이러한 수행은 감정 재생산의 영역으로 귀속되어 사적으로 주변화된다.(알바 갓비, 전경훈 역, 앞의 책, 2024, 160-164쪽)

지막으로 어린 시절의 회상을 통해 삽입된 박해수-석윤아의 관계는 친밀성과 욕망의 또 다른 서사의 흐름을 제시하여, 운동 조직 중심의 실패 서사와 병치된다. 요컨대 『푸르른 틈새』의 서사는 '헌신-단절-회복'의 감정 플롯을 교차시키며, 감정의 승인 규칙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서사적으로 보여준다.

3.2 '헌신'의 플롯 해체와 '연대' 플롯의 재구성

『푸르른 틈새』의 서사는 운동권 네트워크의 응시·평가·인증 체계에 접속하려는 손미옥이 '헌신'의 감정 승인 플롯에 완전히 진입하지 못하는 지점에서 시작된다. 이 플롯은 ① '약하다'는 평가와 시위 현장에서의 몸의 머뭇거림이 '결격'으로 판정되는 국면, ② 그 판정이 수치·죄의식·자기검열로 전환되며 공포와 불안을 공적 감정 체계에서 차단하는 국면, ③ 그 틈에서 노미혜의 '유혹/친밀'의 수행이 공적 승인 바깥에서 다른 관계 양식을 조직하지만 다시 공적 승인 규칙과 충돌하는 국면으로 이어진다. 이후 플롯은 ④ 대학 바깥의 저강도 시간(외가·부엌·집)으로 이동하며 돌봄·요리·청소와 같은 감정 재생산 수행이 관계를 재조정하는 국면을 만들고, ⑤ '치킨 수프'의 감각적 잔여가 그 수행의 리듬을 응축한다. 마지막으로 ⑥ 레즈비언 욕망의 상상은 '아버지-딸' 관계 규격의 정동 구조를 드러내고 탈영토화함으로써, '헌신'의 승인 플롯을 해체하고 회복·연결·자기 승인으로 감정을 다시 배열하는 '연대' 플롯의 재구성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3.2.1 '헌신'의 플롯에서의 이탈: 플롯의 중단과 정동의 차단

손미옥의 대학 1학년 시절, 평가의 장면들은 '헌신'의 플롯에서 이탈이 발생하는 지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 "……미옥인 너무 약해."
> (…)
> "점점 좋아지고 있긴 한데…… 보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더라."(91-92)

이 평가는 손미옥이 네트워크의 감정 승인 문턱에서 경계에 서 있음을 암시한다. 차종태가 "시위에 참가하기 전에 조금씩 술을 마시는 버릇"(100)을 나무라는 장면은, 그가 조직의 리듬에 맞추지 못하는 몸을 '이탈'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경의 곤봉 앞에서 다리가 굳는 몸의 반응은, 접속 문턱에서 젠더 규범과 신체 반응이 교차하는 순간이다.

> "왜 불행은, 가장 사심없고 순결한 순간에 나를 습격하는가? 나는 주춤주춤 일어나 전경 앞을 지나쳐 걸었다. 곤봉이 언제 내 뒤통수나 등허리를 강타할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다리가 굳어서 뛸 수가 없었다. 나는 약간 절뚝거렸고, 욱씬욱씬 쑤셔오는 오른쪽 어깨를 왼손으로 어루만지면서 무작정 걸었다. 오른손에는 아직도 돌이 꼭 쥐어져 있었다. (…) 바보거나 맹추인 듯이 보이는 이 자세는 내 안에서 어떤 이상한 느낌, 그러나 아주 낯익은 느낌을 불러일으켰다."(105)

이 장면에서 손미옥의 신체는 네트워크의 리듬에 동기화되지 못하고, 공포·불안의 감정은 '극복되지 못한 개인적 결함'으로 환원된다. 그는 다리가 굳는 순간을 열한 살 때 과자를 훔치다 들켜 나무람받던 기억과 접속시키며, 자신의 신체를 죄의식의 기호로 재인식한다. 특히 이어지는 손미옥이 전경에게 가죽장갑으로 뺨을 맞고 우는 장면은 운동권의 감정 승인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장면이다.[49] 손미옥은 자신의 울음을 "비굴한 감사"(120)의 표현으로 해석한다. 이는 감정이 단순히 표현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타자의 시선에 부합하려 애쓴 끝에 '적의'를 가장하다가 오히려 '공포와 애원'을 노출한 결과로 발생한 것이다. 뺨을 때린 전경은 손미옥의 눈빛 속 복종의 정동을 감지했고, 손미옥은 그 시선에 자신이 '비굴한 감사'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들키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의 울음은 스스

49 "그(인용자: 전경)는 (…) 들고 있던 가죽장갑으로 내 뺨을 찰싹 후려쳤다. 나는 얼얼해진 뺨을 싸안으며 고개를 처박고 울었다. / '곤봉으로 맞았다면 이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것을……? / (…) 내 눈빛에는, 불타는 적의를 담으려고 애썼지만 그러나 실제의 내 눈빛에는 애원과 공포가 담겨 있었을 것이고, 전경은 그것을 읽었을 것이다.(…) 나는 모욕도 울분도 아닌, 분노도 치욕도 아닌, 단지 비굴한 감사를 못이겨서 울었을 뿐이었다."(120)

로도 인지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감정을 감추기 위한 울분의 위장과, 복종의 비굴함이 얽히며 발생한 기묘한 감정의 혼합이었다. 이 울음은 감정 승인 플롯에 진입하지 못한 탈락한 감정의 결과이며, 타인에게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나약함'의 감정이었던 것이다.

결국 '불안한 몸'은 조직 내에서 승인받지 못하고, '중성적 견고함'(77)으로 규정된 강인함의 코드에도 진입하지 못한 채 주변화된다. 손미옥의 신체 반응은 감정 승인 구조 바깥으로 밀려나며, 공적 장면에서는 삭제된다. 이는 배하은이 지적하듯, 운동권 내부에서 저항의 진정성이 전투적 남성성의 수행으로 측정되는 구조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운동권 여성은 언제나 '충분히 강하지 못한 존재'로 위치 지워지며, 그 몸의 불안은 곧 자격의 결여로 해석된다.[50]

반면 노미혜는 지하 써클의 감정 승인 장치에 접속하지 않고, 친밀성과 유혹을 중심으로 한 '여성적 코드'를 자신의 신체에 적극적으로 새긴다. 이러한 수행은 감정 승인 구조의 외부에서 작동하는 '유혹의 플롯'으로, 감정의 다른 리듬과 관계 방식을 조직한다. 손미옥은 노미혜의 몸을 보고 "여성적인 유혹에 마음이"(76) 끌린다며, "미혜 얜 벗겨놓고 봐야 이뻐"(84)라고 감탄한다. 이 표시는 지하 써클의 공식 활동에서는 오염된 감정으로 탈정치화되지만, 사적 관계의 영역에서는 매력 자본으로 작동하며 관계를 주도한다.

> 뒤늦게나마 나를 유년에서 성년으로 변신시킨 원인은 연애감정이었다. 연애는 내가 그토록 억압하고자 했던 여성적 취향을 활활 타오르게 했다. 여름 농활이 끝난 후 내가 지향한 중성성에 대한 열의라는 것은, 이미 대학에 입학할 때 내 몸이 여성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들 내 신체 발육마저도 능히 변경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한 것이었다. 이런 두꺼운 벽을 뚫고 여성다움에 눈뜨게 한 연애감정 역시 실로 엄청나게 강한 동력을 가진 감정이었다.(195)

손미옥은 류한영과의 연애와 섹스를 통해 자신의 신체를 여성적 코드와 접속시

50 배하은, 앞의 글, 2024, 47쪽.

키고, 억압되었던 감정과 욕망을 회복한다. 그러나 그 변화는 다시 조직의 승인 규칙과 충돌한다. 류한영은 손미옥이 아니라 노미혜를 선택하고 결혼함으로써, 연애와 결혼이 여성적 코드의 수행을 공적 승인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경로임을 보여준다.

결국 손미옥은 두 층위에서 이중의 실패를 겪는다. 중성화된 '강인함'의 코드에도 완전히 편입되지 못하고, 여성적 코드의 수행을 통해서도 감정 승인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로써 손미옥의 몸은 '헌신의 플롯'과 '유혹의 플롯'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추락하며, 그 이탈 속에서 두 플롯 모두 중단된다.

3.2.2 감각적 회고와 '연대'의 플롯: 감정 재생산 수행으로의 재접속

『푸르른 틈새』의 핵심은 대학 네트워크의 응시·평가 체계에서 이탈한 손미옥이, 대학 바깥의 저강도 시간 속에서 새로운 감정 리듬을 회복한다는 데 있다. 가사 협업 장면에서 손미옥이 정수진·노미혜와 함께 요리를 할 때 "가장 사이가 좋았다"(80)는 대목은 외가의 '여인 군단'이 보여주는 협업의 리듬과 겹쳐진다. 이 협업은 공식적인 표시나 계보 없이도 관계를 재조직하는 감정 재생산의 장면이다. "옛날 같으면 종손이 계집애들하고 밥숟갈을 섞겠냐"(67)는 규범이 무력화되고, 어머니가 가장의 위치를 차지하며 가족 질서가 재배치된다. 외가/부엌/좌석 배치라는 물질적 기반과 종손 규범의 전도라는 표현적 요소가 결합해 '계보 표시 없는 회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관계 재조정의 리듬은 손미옥이 휴학 중 아버지 손재우와 지내는 시간에서도 반복된다. 실직 이후 몰락한 손재우는 집안의 '패배자'로 전락하지만, 그 역시 저강도 시간 속에서 새로운 수행을 시작한다. 외가 식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술에 취해 "이년들아! 나, 손재우, 아직 안 죽었노라!"(185)라 외치고, 그 장면에서 외가 사람들과 손미옥 모두 그를 경멸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손미옥과 손재우의 관계는 '집'이라는 물질적 공간 속에서 다른 리듬을 획득한다. 손미옥은 아버지와 자주 낮술을 함께하며, "대화방식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160)고 "각각의 몫을 독백"(160)했다고 고백하지만, 그 경험의 공유 속에서 미묘한 유대가 싹튼다. 손재우는 차종태와 정수진의 전화를 대신 받아 따

돌리며 손미옥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 사이의 거리감은 서서히 다른 형태의 이해로 전환된다.[51]

손재우는 시민공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게 된 뒤, 직접 장을 보고 밑반찬을 만드는 일에 재미를 붙인다. 손미옥은 공황 활동 이후 "직업소개소 직원 절대로 나 같은 위인에게 맡겨질 리 만무"(246)라며 포기했던 청소 일을 아버지가 수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와의 관계를 새롭게 인식한다.

이때 손재우가 반복하는 장보기·요리·청소는 단순한 생계 행위가 아니라 돌봄과 정서 유지 노동을 포함한 감정 재생산의 수행이다. 그는 집안의 물질적 유지뿐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안정까지 담당하며, 그 일은 사회적 재생산 노동으로 확장된다.[52] 이렇게 집과 부엌이라는 물질적 공간에서 손재우의 수행은 젠더 규범을 비껴나고, 부계적 의례 리듬을 미묘하게 변주한다. 장보기와 요리하기 같은 저강도 시간의 반복은 응시·표시 체계의 평가 회로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며, 돌봄 수행을 통해 관계를 재조정하고 재접속을 회복한다. 요컨대 손재우의 감정 재생산 수행은 '아버지'라는 승인 권한·계보·의례 리듬에서 벗어나 다른 감정 리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 수행의 상징이 바로 손재우가 끓이는 '치킨 수프'다.

> "당분간 아버지(인용자: 손재우)는 어머니를 위해 여러 가지 채소를 사 오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깍듯이 대접할 생각이 전혀 없는 어머니는 아버지가 사들고 온 나물이나 생미역 따위를 반드시 트집 잡았고, 호의를 곡해당한 남편이 의당 그렇듯 아버지는 몹시 광분하여 아예 채소를 사

51 "내게 걸려온 전화는 늘 아버지가 받아 따돌리기로 되어 있었다."(163)

52 사회적 재생산(social reproduction)은 단순히 생물학적 재생산에 한정되지 않고, 인구의 유지와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신적·육체적·감정적 필요노동을 포함한다. 티티 바타차리아(Tithi Bhattacharya)는 이를 "식량, 의복, 주거, 돌봄, 사회화, 섹슈얼리티의 구성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필요노동의 총체"로 정의하며, 공적 생산과 사적 재생산의 분리를 넘어 두 영역의 관계를 함께 사유해야 한다고 말한다 (Tithi Bhattacharya, "Introduction: Mapping Social Reproduction Theory", *Social Reproduction Theory*, Pluto Press, 2017, pp.6-7). 따라서 손재우의 장보기·요리·청소 수행은 단순한 생계 유지가 아니라, 가족의 정서적 안정이라는 감정 재생산 수행이자 동시에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사회적 재생산의 수행으로 읽을 수 있다.

는 걸 관둬버렸다. 아버지는 월급을 타면 한 달 밑반찬 거리를 사다 간장에 조리거나 양념고추장에 얼큰하게 볶아 놓았고 돼지고기 두어 근과 소고기 약간은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고기 굽는 냄새를 질색하는 어머니가 절에서 밤샘을 하는 날을 골라 야금야금 구워 먹었다. 그리고 닭뼈 몇 개를 집어넣어 '치킨 수프'를 끓이기 위해서 닭 한 마리를 사는 것도 빼놓지 않았다."(239)

'치킨 수프'는 돌봄의 반복을 냄새와 맛으로 각인시키는 감각적 매개이자, 감정 재생산 수행의 은유다. 손미옥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천하일품"(263)이었다고 회상하며 그 관계의 감각적 잔여를 복원한다. 결국 손재우의 '치킨 수프'는 감정 재생산 수행의 상징으로, 젠더 규범과 부계 질서의 리듬을 비껴가며 연대의 플롯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손미옥은 바로 이 수행을 통해 감정 승인 플롯의 외부에서, 다른 관계와 욕망의 회복 경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3.2.3 레즈비언 욕망과 '헌신' 플롯의 재조립

손미옥의 휴학기 리듬은『아라비안 나이트』속 여성들에 대한 매혹으로 이어진다. 샤리야르 왕비가 흑인 노예를 불러들이는 장면이나 마신을 피해 왕을 유혹하는 미녀의 이야기에서 손미옥은 "달뜨게"(165) 되는 감각을 경험한다. 그는 여성의 욕망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음탕함의 원천"(165)임을 깨닫고, "금지된"(165) 형식을 위반할 때 쾌감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 저강도 시간 속 자위의 경험은 죄의식으로 억눌린 여성성을 긍정으로 전환하는 자기 승인을 연습하는 감정적 수행이 된다. 이 매혹은 유년기의 레즈비언 욕망 기억과 겹쳐진다. 손미옥은 박해수와의 밀착된 우정과 석윤아에 대한 매혹을 회상하며[53], "열아홉의 내가 노미혜에게 마음이 끌린 것도, 윤아에게 끌렸던 마음과 같았다"(76)고 회상한다. 그러나 대학 시절, 지하 써클의 감정 승인 구조 속에서 이러

53 시위에서 전경을 피해 도망친 교회에서 박해수를 만나는 장면은 고강도 시간에서 저강도의 시간으로 전환되며 레즈비언 욕망의 기억이 다시 접속되는 순간을 보여준다.

한 욕망은 억제된다. 다시 말해, 손미옥의 레즈비언 욕망은 여성성에 대한 원초적 매혹이자, 그 매혹을 긍정하며 자기를 재구성하는 행위로 드러난다.

복학 후 손미옥은 한영과의 연애를 통해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195)가 되었으며, 그와의 연애와 섹스는 "여자가 향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모든 특권들을 향유"(215)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었다.

> 남자에게서 그런 시선을 받는 것을 수치로 여기면서 중성으로 살고자 했던 시절의 나는, 남녀 간의 추상적 동등함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신경을 집중했다. 추상적인 동등함에의 지향이 에로틱한 시선을 차단해주었다. '여자가…' 라는 토씨를 쓰는 남자애와는 연애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속에는, 누군가 나를 '에구 귀여워라'하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를 갈망하는 또 하나의 내가 끈질긴 생명력으로 버티고 있었다.(215)

손미옥은 남녀 간 '추상적 동등함'의 이념이 에로틱한 시선을 차단해왔음을 깨닫는다. 동시에 그는 "누군가 나를 '에구 귀여워라'하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를 갈망하는 또 하나의 나"(215)를 발견한다. 손미옥은 여성성이 단순히 억압된 것이 아니라, 에로틱함을 향유하고자 할 때, 연인으로서의 여자와 동시에 "그의 딸이 되고 싶은 마음"(215)과 함께 작동하는 사실을, 즉 아버지-딸 관계의 규격 속에서 여성성을 규정해왔음을 자각한다. 손미옥이 떨쳐내고자 하는 것은 여성성 자체가 아니라, '아버지-딸'의 관계 규격이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손미옥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1: 스완네 쪽으로』의 뱅퇴유 양이 죽은 아버지의 사진을 두고 가정교사와 레즈비언 섹스를 즐기는 장면을 떠올린다. 손미옥 역시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자위를 통해 쾌락의 중심에 닿고자 한다.[54]

---

54 손유경은 손미옥이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에서 자신의 쾌락을 중심에 놓는 장면을, 욕망의 주체성이 드러내는 수행으로 읽는다. 손유경은 손미옥의 레즈비언 욕망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뱅퇴유 양과 병치하며, 가부장제 규범을 벗어나려는 두려움과 쾌락의 교차로 해석한다.(손유경, 「젠더화된 세대교체 서사를 패러디하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8호,

그러나 “아버지를 쾌락의 중심에 놓는 순간, 쾌락 자체가 흔적 없이”(260) 사라진다는 깨달음은, ‘아버지-딸’ 관계의 규격이 여성성을 규정해온 정동 구조의 실체를 자각하는 것이다. 레즈비언 섹스의 상상은 그 구조를 벗어날 때, 승인 질서가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따라서 손미옥의 레즈비언 욕망은 상징적 아버지의 단순한 부정이 아니라, ‘아버지-딸’ 관계의 규격을 탈영토화하여 그 정동 구조를 우회하는 수행이다. 그는 이 욕망을 통해 ‘헌신’ 플롯이 남겨둔 승인 질서 바깥에서, 저강도 시간 속 다른 관계와 욕망의 조립법을 실험한다.

3.2.4 ‘헌신’의 플롯에서 ‘연대’의 플롯으로

『푸르른 틈새』의 감정 승인 플롯은 장소와 시간, 접속과 절차 같은 물질적 기반 위에서, 기호·담론·응시-표시 체계·서사 등의 표현적 장치가 서로 엮이며 드러난다. 핵심 허브에 가까이 닿은 인물과 압축된 시간의 리듬에 적응한 몸은 ‘헌신’과 ‘동지애’의 감정으로 승인되지만, 그 리듬에서 비껴난 몸은 ‘약함’과 ‘불안’의 이름으로 호출된다. 손미옥에게 부과된 평가는 중성화된 수행의 문턱에서 미달로 판정된 몸의 흔들림을 보여주며, 노미혜의 행보는 친밀성과 유혹의 ‘여성적 코드’가 공적 승인 바깥으로 밀려나는 장면을 드러낸다.

그러나 손미옥이 저강도의 리듬으로 이동하면서, 감정 승인 플롯의 규칙은 미묘하게 변조된다. 집과 부엌, 교회 같은 공간들은 네트워크의 응시-표시 체계를 잠시 멈추게 하며, 외가의 ‘여인 군단’이 보여주는 협업의 리듬은 가족의 고정된 위계를 느슨하게 풀어낸다. ‘치킨 수프’로 상징되는 아버지 손재우의 감정 재생산 수행 또한, 물질적 행위가 젠더 규범의 질서와 정면으로 결합하지 않고 옆으로 미끄러지며 다른 리듬을 만들어내는 장면으로 비추어진다. 이때 감정의 승인 구조는 더 이상 하나의 질서로 닫히지 않고, 돌봄과 회복의 수행 속에서 새로운 관계의 조율로 흩어진다.

이 변형의 결정적 계기는 레즈비언 욕망이다. 손미옥은 “아버지를 쾌락의 중심에 놓는 순간, 쾌락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진다”(260)는 깨달음을 통해, 여성

한국현대문학회, 2019, 372-373쪽)

성이 ‘아버지-딸’ 관계의 정동 구조 속에서 규정되어 왔음을 인식한다. 이 구조에서 ‘여성성’은 귀여워지고, 보호받고, 예쁨 받는 존재로 승인되어 왔으며, 그 승인 방식이 곧 감정 승인 플롯의 젠더화된 문턱이었다. 그러나 손미옥의 레즈비언 욕망은 이 구조를 벗어나려는 수행으로 작동한다. 그는 ‘딸’로서 승인되는 여성성의 자리에서 이탈함으로써, 감정 승인 플롯을 지탱하던 정동 구조의 질서를 해체한다. 그 결과, ‘헌신’과 ‘동지애’를 정당화하던 감정 승인 플롯은 효력을 잃고, 욕망은 자기 승인과 새로운 관계의 감정 리듬으로 재조립된다. 이처럼 권여선 소설에서 레즈비언 욕망과 아버지의 돌봄 수행은 기존 학생운동 감정 승인 플롯이 요구하는 헌신/환멸의 감정 구도를 그대로 반복하는 수행이라기보다, 그 플롯의 요소들을 비틀어 다른 감정 관계망을 여는 수행으로 보인다. 본고는 이러한 수행을, 이미 주어진 감정 승인 플롯을 반복하면서 그 안의 감정 요소와 관계의 배치를 다시 조합하는 재조립적 감정 재생산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푸르른 틈새』가 보여주는 결론은 명확하다. 감정 승인 플롯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물질적·표현적 배치의 조응 여부에 따라 작동하는 가변적 구조다. 저강도 시간과 관계 규격의 이탈은 그 플롯을 우회·변형하는 재조립적 수행적 통로이며, 바로 그 변형의 리듬 속에서 ‘연대’의 가능성이 열린다.

4 ‘주체’의 수행에서 수행의 ‘장치’로 : 관계의 외재성/내재성과 감정 승인 장치의 정치

앞선 두 장은 각각 『십 년 간』과 『푸르른 틈새』 안에서 특정 인물의 감정이 어떻게 승인되거나 배제되는지를 플롯 차원에서 추적했다. 이제 4장은 누가 어떤 감정을 수행하는가라는 주체 중심 질문에서 어떤 관계와 장치가 감정 승인 플롯을 설계하는가라는 장치 중심 질문으로 초점을 옮기고자 한다. 다시 말해, 개별 인물의 헌신·돌봄·욕망을 평가하는 대신, 감정을 승인 가능한 것으로 만들거나 비가시화하는 관계의 배치와 수행 장치를 분석 단위로 삼는다. 이 장의 목적은 감정 승인 구조를 정체성의 속성이 아니라, 조립체적 장치의 효과로 재규정하는 데 있다.

4.1 관계의 외재성과 내재성

마누엘 데란다는『조립체 이론(Assemblage Theory)』(2016)에서 들뢰즈와 가타리를 따라, 사회적 실체를 관계의 외재성(exteriority)에 근거해 설명한다. 구성 요소들은 전체에 종속되지 않고, 서로 접속·분리되며 다른 조합으로 재배치될 수 있다. 반대로 내재성(interiority)의 관계는 두 항의 관계가 사물의 본질을 규정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예컨대 '아버지-자식' 관계는 그 관계 자체가 각 항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내재적 관계의 예이며, 반면 '동맹(alliance)'은 그러한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연결하는 관계이다. 데란다는 이러한 구분을 통해, 사회적 실체를 본질적 정체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이질적 요소들의 외재적 접속을 통해 구성되는 조립체로 이해한다. 따라서 사회적 실체는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외재적 관계들의 결합과 분리, 재조립의 과정으로 형성된다.[55] 이를 통해 내재성으로 보이는 상태는 외재적 접속의 반복적 코드화를 통해 관계가 응고(congealment)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분석의 초점을 정체성이 아니라 관계의 동역학에 둘 수 있다.

이 관점을 1980~1990년대 운동권 지하 써클의 감정 승인 플롯에 적용하면, '헌신'과 '동지애'로 승인되는 감정 역시 특정한 접속 문턱과 의례의 반복에서 만들어진 응고 효과임을 알 수 있다. 승인은 단순한 인물 간의 감정이 아니라, 서사를 조직하는 플롯의 규칙으로 작동한다. 즉, 선후배 관계·호명 절차·시간 리듬·의례적 장치가 조율될 때만 감정이 '공적'으로 승인되고, 이 구조가 '누구의 감정이 서사 속에서 말해질 자격을 갖는가'를 결정한다.

특히 젠더는 이 승인 회로의 핵심 문턱이다. 남성의 '헌신'만이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감정으로 승인되는 반면, 여성의 돌봄과 정서 유지노동은 배제되어 서사에서 비가시화된다. 즉 여성의 감정은 승인되지 않은 채 플롯의 바깥, 비승인된 정동으로 남는다. 관계의 내재성처럼 보이는 위계는 외재적 접속이 젠더 규범에 코드화되어 결합된 결과이며, 그 반복이 '승인 가능한 감정'의 서사적 문턱을

55 Manuel DeLanda, "Introduction", *Assemblage Theory: Speculative Realism.*,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6, pp.1-3.

결정한다. 따라서 감정 승인 플롯의 바깥을 감지하기 위해서는, 반복 속의 균열과 탈주, 곧 관계의 다른 조립과 감정의 다른 서사화 방식을 함께 읽어야 한다. 본장은 『십 년 간』과 『푸르른 틈새』를 통해, 젠더라는 접속 문턱이 감정 승인 플롯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플롯이 어떤 방식으로 교란되고 재조립되는지를 살필 것이다.

4.2 외재적 관계의 응고와 접속 문턱으로서의 젠더: 『십 년 간』(1995)

『십 년 간』의 학생운동 지하 써클은 선발·비밀·차등 접근이 겹쳐진 폐쇄적 회로 안에서 움직인다. 핵심 라인이 결정을 내리면 동원과 집결이 즉시 이뤄지고, 이 압축된 시간의 리듬 속에서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며 하나의 승인 질서로 응고된다. 텍스트가 보여주는 관계의 내재성은 사실 외재적 접속의 반복이 서사화된 응고 효과다.

선언문 낭독, 선창-합창, 행진으로 이어지는 의례 장면은 누가 말하고 어떤 감정을 발화할 자격이 있는가를 규정하는 승인 장치다. 이 장치가 작동할 때, 감정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된다. 슬픔과 회한 같은 감정은 의례를 통과하며 '헌신'으로 번역되고, 결국 서사는 '승인 가능한 감정'만을 중심으로 조직된다. 이 반복된 승인 구조가 바로 『십 년 간』의 감정 승인 플롯이다.

남성 인물들의 헌신은 서사의 중심 플롯으로 기록되지만, 여성 인물들의 돌봄과 정서 유지노동은 비가시화된다. 그들의 감정은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호출되지만 승인 바깥에 머무르며, 서사의 리듬을 유지하는 비가시적 장치로만 기능한다. 젠더는 이 승인 회로의 접속 문턱, 다시 말해 감정 승인 플롯을 작동시키는 서사적 문턱이다. 그러나 여공들의 노조 운동 장면에서 텍스트는 '헌신' 플롯이 포착하지 못한 감정과 관계의 부재, 곧 그 플롯의 구조적 결핍을 드러낸다.[56] 의

56 여기서 말하는 '결핍/부재'는 라캉식 증상과 결핍이라기보다, 피에르 마슈레가 텍스트 분석에서 강조하는 말해지지 않은 것(non-dit), 없음의 자리에 가깝다. 마슈레에게서 텍스트는 드러내는 것만큼이나 숨기는 것을 통해서도 읽혀야 하며, 이러한 부재는 텍스트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적·물질적 생산 조건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할 때 남는 구성적 잔여로 이해된다(피에르 마슈레, 윤진 역, 『문학 생산의 이론을 위하여』, 그린비, 2014, 220-221쪽).

례와 계보 등으로 승인 규칙에 포섭되지 않는 돌봄과 절차 공개가 미세한 강도로 새어 나오며, '헌신' 플롯의 감정 질서를 교란한다. 이 징후는 플롯의 해체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지만, 감정 승인 구조의 경직된 리듬이 흔들리는 것으로 읽힌다.

따라서 분석의 초점은 '누가 수행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감정을 승인 가능하게 설계하는가, 곧 자원-절차-시간층과 기호-담론-인증 체계-서사가 결합된 감정 승인의 회로를 추적해야 한다. 이어지는 『푸르른 틈새』는 이러한 미세한 균열이 감정 승인 플롯을 다시 조립하는 서사적 실험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4.3 관계의 재조립과 감정 재생산의 수행: 『푸르른 틈새』(1996)

『푸르른 틈새』는 초반부에서 여전히 젠더화된 외재적 관계를 반복하며, 남성의 헌신이 승인되고 여성의 감정이 비가시화되는 감정 승인 플롯 구조의 잔향을 드러낸다. 그러나 텍스트는 그 구조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플롯의 내부에서 승인 장치가 흔들리는 리듬을 탐지한다.

그 재조립의 시작은 실직한 아버지가 끓이는 '치킨 수프' 장면이다. 집과 부엌은 고강도의 사회적 공간과 다른 지연된 시간의 리듬이 흐르는 저강도 장소이며, 손재우가 반복하는 장보기·요리의 수행은 '아버지'라는 승인 체계가 관장하던 감정 플롯의 리듬을 전도시킨다. 남성이 돌봄과 정서 유지 노동을 수행하면서, '헌신' 중심의 감정 체계는 유지·회복·연결의 다층적 리듬으로 재배치된다. 냄새와 온도, 맛과 같은 감각적 요소가 서사의 정동 리듬을 다시 짜며, '치킨 수프'는 감정 승인 플롯의 우회적 재배치를 가시화한다.

이 변형은 손미옥의 레즈비언 욕망 서사에서 더욱 명시적으로 이어진다. 손미옥은 '아버지-딸' 관계의 규격이 여성성을 규정해온 감정 승인 플롯의 기반임을 자각하고, 이를 벗어나며 쾌락의 리듬을 재조정한다. 『아라비안 나이트』의 유혹 서사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뱅퇴유 양의 장면을 경유하면서, 그는 '아버지'를 쾌락의 중심에 놓는 순간 쾌락의 흐름이 멈춘다는 사실, 곧 승인 구조가 욕망의 흐름을 차단해왔음을 감지한다. 레즈비언 욕망은 새로운 정체성의 선언이 아니라, 감정 승인 플롯을 형성해온 관계의 규격을 탈영토화하고 욕망의 흐

름을 다른 접속들로 재배치하는 수행으로 작동한다.

그 결과, 손미옥에게 부과된 '불안'과 '약함'의 감정은 저강도 리듬 속에서 자기 승인과 대체적 의미망으로 전환된다. 수행의 초점은 주체의 의지에 있지 않다. 장소-인프라와 시간의 리듬, 독서와 신체 감각이 엮여 만들어내는 수행의 장치가 그 변형의 매개로 작동한다.

'치킨 수프'와 레즈비언 욕망은 서로 다른 경로이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닿는다. 『푸르른 틈새』의 서사는 '헌신'으로 단일화된 감정 승인 플롯을 유지·회복·연결의 다층적 리듬으로 재구성하며, 감정의 새로운 형식을 생산한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감정 승인 구조를 단순히 비판하는 서사가 아니라, 그것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재구성하는 메타적 플롯으로 작동한다. 감정은 더 이상 '누가 느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장치와 리듬이 감정을 승인하는가', 그리고 그 플롯이 어떤 새로운 정동 질서를 배치하는가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

4.4 '주체의 수행'에서 '수행의 장치'로: 감정 승인 플롯의 이론적 전환

앞선 분석에서 드러났듯, 감정의 승인과 배제는 인물의 의지나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이 반복적으로 승인되는 서사 장치의 리듬에 따라 구성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제 이러한 감정 승인 플롯을 '어떻게 다른 리듬으로 재조직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사유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십 년 간』에서 '헌신'의 플롯은 이미 주어진 감정 승인 구조를 규범대로 반복함으로써 재생산하는 수행에 가깝다. 이에 비해 『푸르른 틈새』에서 레즈비언 욕망과 '치킨 수프'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돌봄 수행은 '헌신'의 플롯을 단순히 거부하거나 외부로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의 관계의 배치를 비틀어 다른 재조립을 만들어내는 수행으로 읽힌다. 물론 레즈비언 욕망이 감정 승인 플롯을 교란하는 중요한 계기로 분석되지만, 그것이 단일한 대안적 실천으로 이상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핵심은 장치의 리듬을 바꾸는 재조립적 수행에 있다. 전자를 규범적 감정 재생산 수행이라 부를 수 있다면, 후자는 감정 승인 플롯을 반복하면서 동시에 그 구조를 다시 조합하는 재조립적 수행으로 독해할 수 있다. 즉 '재조립적 감정 재생산 수행'은 특정 젠더나 정체성의 고유한 특

권이라기보다, 누구나 수행할 수 있는 실천의 한 양식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십 년 간』(1995)과 『푸르른 틈새』(1996)에 나타난 감정 승인 플롯은 젠더라는 접속 문턱 위에서 작동하지만, 젠더 하나로 환원되지 않는다. 감정의 승인 여부는 개별 주체의 정체성보다, 감정을 승인하도록 설계된 장치적 조건인 장소-인프라-인적자원-절차-시간층, 기호-담론-인증 체계-서사 등의 결합하는 방식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치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고 조율되는가에 따라 감정의 승인 구조인 서사의 플롯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감정 승인 플롯은 단일 인물의 내면 서사가 아니라, 장치가 조직한 감정 리듬의 서사적 효과로 읽힌다.

『십 년 간』에서는 은폐 인프라와 선발·비밀·차등 접근의 절차가 의례와 순교·계보 서사와 결합하면서, '헌신'의 감정만이 단일화되어 승인되고 여성의 돌봄·정서 유지 노동은 비가시화되는 장치가 드러난다. 반면 『푸르른 틈새』는 집과 부엌 같은 저강도 공간, 지연된 시간 리듬, 독서나 자위와 같은 미시 수행을 통해 이 승인 회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킨다. '치킨 수프'와 레즈비언 욕망은 장소·시간층·감각의 리듬을 변형시키며 감정 승인 플롯의 규격을 어긋나게 하고, '헌신' 중심의 감정 체계를 유지·회복·연결의 다층적 리듬으로 재배치한다. 두 텍스트의 차이는 '누가 수행하는가'가 아니라, '수행을 조율하는 장치가 어떤 리듬과 문턱으로 설계되어 있는가'에 있다. 같은 수행이라도 장치의 리듬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감정 승인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감정 승인 구조가 주체의 의지나 행위로만 환원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체성처럼 보이는 관계의 내재성은 동일한 리듬과 절차의 반복이 낳은 응고 효과일 뿐이다. 따라서 '주체에게 다르게 수행하라'고 요구하기보다, 감정 승인 장치의 리듬 자체를 조정·변형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주디스 버틀러의 수행성(performativity) 논의와 맞닿아 있다. 버틀러는 젠더를 본질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구성되는 효과로 규정하며, 규범의 반복이 동시에 다시 굳어지는 응고(sedimentation)와 어긋남의 가능성을 함께 낳는 이중 효과를 지닌다고 보았다.[57] 다만 이러한 반복의 정치학은 여

57 주디스 버틀러는 수행성의 반복이 규범을 재생산하면서도 어긋남을 산출한다고 보며, 이

전히 '어떻게 다르게 반복할 것인가'라는 주체의 윤리적 결단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규범을 반복적으로 조율하는 장치의 차원은 상대적으로 덜 논의되어 왔다. 반복이 항상 규범의 재생산과 어긋남을 동시에 산출한다면, 개입의 초점은 주체의 의지보다 반복을 매개하는 수행의 장치로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반복의 효과를 주체의 결단보다 장치의 조율 리듬에 두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버틀러의 수행성 이론을 데란다의 조립체 이론과 교차시켜 본다. 데란다가 말한 외재적 관계의 조립은 규범적 반복이 결코 본질로 고정되지 않으며, 언제나 리듬·절차·공간적 접속의 재구성 가능성 위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감정 승인 플롯을 장치의 리듬으로 읽을 때, '여성의 감정/남성의 감정'이라는 범주 구분은 해체되고, 누가 수행하든 감정이 승인되는 경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중요한 분석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다. 이 전환은 정체성 정치가 주체의 차이에 윤리적 책임을 부여하는 데 머무르던 초점을, 승인 구조의 설계 변경과 관련된 장치의 정치학으로 초점을 옮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장치의 정치학은 감정 승인 구조를 다시 배열하는 플롯의 재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감정이 승인되는 서사적 시간과 리듬 자체를 재

중 효과를 인정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욕망이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라는 사실은, 어떤 규범으로도 섹슈얼리티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정신분석학적 이해와 일맥상통한다. 그보다 욕망의 특징은 자리바꿈이고, 욕망은 규범을 넘어설 수 있으며, 규범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완전히 뒤집어 규범을 매력적이게 만들 수도 있다."(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동네, 2015, 서문, 32쪽;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초판 서문;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 들어가는 말, 참조). 수행성 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정체성의 재응고 위험을 강하게 지적해 왔다. 벤하비브(Seyla Benhabib)는 보편 규범 기준의 부재가 정치 판단을 마비시킨다고 지적하며("Feminism and Postmodernism", *Feminist Contentions*, 1995),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은 수행성 정치가 물질적 불평등 개입으로 원활히 접속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The Professor of Parody", *The New Republic*, 1999) 또한 리사 두건(Lisa Duggan)은 퀴어 정치 내부에서조차 동성애 규범성(homonormativity)의 재규범화를 경계했다(리사 두건, 한우리·홍보람 역, 『평등의 몰락』, 현실문화, 2017[2003]). 교차성, 트랜스-포함 논쟁, 동성애규범성 논쟁이 보여주듯, '여성' 범주의 정체성 응고의 강화는 곧 정체성 정치의 배제 장치로 되돌아갈 위험을 내포한다. 본고는 이러한 딜레마를 우회하기 위해 주체에서 장치로 분석 단위를 이동시키는 방법론적 대안을 모색한다.

설계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버틀러가 반복의 정치학을 통해 규범의 균열을 열었다면, 본 연구는 그 틈을 장치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했다. 반복의 리듬을 조정하고 접속의 문턱을 낮추는 설계적 개입은, 감정 승인 플롯을 해체하고 새로운 감정 구조를 구성하는 하나의 실천 조건으로 읽힐 수 있다. 결국 분석 단위를 '주체'의 수행에서 수행의 '장치'로 전환한다는 것은, 감정 승인 구조의 변화를 개인의 의지에 맡기기보다 리듬과 문턱의 설계 변경이라는 구조적 개입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방현석의 『십 년 간』(1995)과 권여선의 『푸르른 틈새』(1996)를 남성성과 여성성의 대비라는 정체성의 틀 속에 배치하기보다, 감정 승인 장치가 두 텍스트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플롯과 접속 문턱을 구성하는지를 통해 1990년대 이후 한국 문학장에서 젠더화된 감정 승인 구조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는 '여성성'의 고유한 본질을 재발견하는 대신, 젠더가 정동과 감정의 분배를 매개하는 장치로 작동하는 과정을 추적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십 년 간』은 '헌신'과 '동지애'를 대표 감정으로 승인하면서 여성 인물의 돌봄과 정서 유지노동을 플롯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표준적인 감정 승인 플롯을 제시하고, 『푸르른 틈새』는 그 플롯이 배제한 돌봄 수행과 레즈비언 욕망, 저강도 시간의 리듬을 통해 '연대' 중심의 다른 감정 플롯을 재구성할 가능성을 탐색한다. 두 텍스트 모두 감정이 승인되고 배제되는 과정을 서사적 리듬으로 드러내며, 그 리듬은 젠더화된 접속 문턱, 절차의 반복, 시간 리듬, 장소 인프라 등의 장치적 조건 위에서 작동한다. 따라서 감정 승인 플롯은 개별 인물의 내면적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승인하는 장치가 만들어내는 서사의 형식적 효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행을 반복하는 장치적 리듬에 주목함으로써, 감정 승인 구조를 단순한 정체성 효과가 아니라 서사적 형식의 문제로 전환해 읽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은 반복과 수행의 관계를 사유해온 이론적 논의들, 특히 주디스 버틀러의 수

행성(performativity) 개념과도 접점을 가진다. 다만 본고는 그 반복의 효과를 주체의 윤리적 결단에 두기보다, 장치의 설계와 그 서사적 형식화의 층위에서 탐색해 보고자 했다. 이때 데란다의 조립체 이론과 관계의 외재성 개념은 감정 승인 구조를 구성하는 리듬과 접속 규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틀로 작동한다. 이러한 접근은 수행의 윤리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 정치의 논의들을 보완하며, 감정의 승인 과정을 서사적 리듬의 문제, 즉 감정 승인 플롯으로 재구성하려는 방법론적 시도를 의미한다.

정체성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특정한 리듬과 절차의 반복이 응고된 결과이며, 플롯은 그러한 반복이 만들어내는 형식적 응고물이다. 따라서 '다르게 되기'란 주체의 결단이 아니라, 그 반복을 조율하는 리듬과 문턱을 재설계함으로써 새로운 서사 형식을 실험하는 일이다. 감정 승인 플롯을 장치의 리듬으로 읽는 일은, 감정의 위계와 승인 규칙을 해체하면서 서사의 리듬 속에서 관계의 재배열 가능성을 탐색하는 비평적 방법론으로 이어진다. 결국 본 연구가 제안하고자 한 것은, 감정을 승인하는 구조를 넘어, 그 구조가 서사 형식으로 작동하는 플롯의 층위를 포착하는 것이다. 감정 승인 플롯은 단지 서사의 내용이 아니라, 사회적 승인 장치가 반복되는 형식적 리듬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 리듬을 다른 방식으로 배열하고 변형하는 일이야말로, 감정의 승인 구조를 바꾸는 가장 서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권여선, 『푸르른 틈새』, 살림, 1996.

방현석, 『십 년 간』 1-2, 실천문학사, 1995.

단행본 및 논문

권보드래 외,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민음사, 2018.

김명인, 『두 번의 계엄령 사이에서』, 돌베개, 2025.

전희경, 『오빠는 필요없다—진보의 가부장제에 도전한 여자들 이야기』, 이매진,

2008.
장성규, 『문학의 민주주의—구로노동문학회소사(小史)』, 역락, 2025.
천정환, 『숭배, 애도, 적대』, 서해문집, 2021.
로렌 벌랜트, 박미선·윤조원 역, 『잔인한 낙관』, 후마니타스, 2023[2011].
마누엘 데란다, 김영범 역, 『새로운 사회 철학—배치이론과 사회적 복잡성』, 그린비, 2020[2006]. 브라이언 마수미, 조성훈 역, 『가상계』, 갈무리, 2011[2002].
알바 갓비, 전경훈 역, 『친밀한 착취—돌봄노동』, 니케북스, 2024[2023].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역, 『여성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2010].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1990].
_____, 김윤상 역, 『의미를 체현하는 육체』, 인간사랑, 2003[1993].
_____, 조현준 역, 『젠더 허물기』, 문학동네, 2015[2004].
질 들뢰즈,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문학과지성사, 2004[1968].
캐롤라인 래빈, 백준걸·황수경 역, 『형식들』, 앨피, 2021[2015].
피터 브룩스, 박혜란 역, 『플롯 찾아 읽기』, 강, 2011[1984].
피에르 마슈레, 윤진 역, 『문학 생산의 이론을 위하여』, 그린비, 2014[1966].
리사 두건, 한우리·홍보람 역, 『평등의 몰락』, 현실문화, 2017[2003].
Manuel DeLanda, *Assemblage Theory: Speculative Realism*,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6.
Tithi Bhattacharya, *Social Reproduction Theory*, Pluto Press, 2017.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들」, 『한국학연구』 제56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20, 249-273쪽.
김은하, 「권여선 '푸르른 틈새', 자기의 진실 찾는 여성 작가와 독자의 탄생」, 경향신문, 2025.7.3
김홍중, 「진정성의 기원과 구조」, 『한국사회학』 제43권 5호, 2009, 1-29쪽.
노태훈, 「1990년대 한국소설과 소수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문예지, 「30대 페미니스트 서사에서 세대의 교차와 분화 읽기—공지영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1993)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5호,

한국현대문학회, 2021, 221-257쪽.
배하은,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아이러니—1980년대 운동권 여대생의 정치적 주체성 구성에 관한 연구」, 『인문학연구』 제40집,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2023, 3-25쪽.
_____, 「섹슈얼리티와 폭력의 아이러니(2)—운동권 여대생 소설의 1990년대적 주체 구성의 기획」, 『여성문학연구』 제6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40-68쪽.
_____,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1980~90년대 문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허학보』 제66집, 상허학회, 2022, 151-192쪽.
백종륜, 「1990년대 이남희 소설의 희망론—생태주의와 퀴어/페미니즘의 교차점 모색하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2호, 한국현대문학회, 2020, 67-105쪽.
서영채, 「소설의 운명, 1993」, 『오늘의문예비평』, 제20호, 오늘의문예비평, 1996봄, 199-229쪽.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77-416쪽.
_____, 「젠더화된 세대교체 서사를 패러디하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8호, 한국현대문학회, 2019, 363-391쪽.
안세진, 「1990년대 한국 문학 비평의 '패배할 수 없는 구조'—포스트모더니즘과 미적 근대성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 『상허학보』 제72집, 상허학회, 2024, 497-530쪽.
유승희, 「『실천문학』이라는 아카이브: 운동-기록으로서의 문학과 1980년대의 『실천문학』」, 『서강인문논총』 제65호,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22, 5-36쪽.
이소영, 「1990년대 페미니즘 정치와 여성의 고통받는 몸—『베틀』, 『나눔터』, 그리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62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4, 69-110쪽.
이채원, 「후일담 소설의 젠더 지평」, 『여성문학연구』 제4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91-226쪽.

임희현, 「1990년대 한국 후일담 문학과 '애도'의 의미」,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25.
정윤영, 「1990년대 소설과 영화의 퀴어 섹슈얼리티 연구—퀴어 주체의 정체성 트러블을 중심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조연정, 「기형도와 90년대」, 『구보학보』 제22호, 구보학회, 2019, 645-648쪽.
조윤정, 「1980년대 운동권에 대한 기억과 진보의 감성」, 『민족문화연구』 제67호, 민족문화연구원, 2015, 277-304쪽.
최가은, 「90년대 여성문학의 곤란한 '대중성'—공지영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5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2, 342-374쪽.
Martha Nussbaum, "The Professor of Parody", *The New Republic*, February 23, 1999.
Seyla Benhabib, "Feminism and Postmodernism", *Feminist Contentions*, 1995, pp.17-34.

Abstract

The Emotional Approval Plot and Gendered Devices in Activist Narratives
: A Comparative Study of Bang Hyun-seok's 〈Ten Years〉 (1995) and Kwon Yeo-sun's 〈The Green Gap〉 (1996)

Song Sangduck
Soongsil University

This paper investigates how male-centered organizational legitimacy is constructed through the regulation of emotion, particularly through gendered structures that determine which affects are formalized and validated as emotions. Building on the distinction between affect as a pre-representational capacity for relation and emotion as its socially sanctioned modulation, the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emotional approval plot: a socio-narrative mechanism that transforms certain affects into recognizable emotions while marginalizing others.
Focusing on 1990s activist narratives, particularly Bang Hyun-seok's 〈Ten Years〉 (1995) and Kwon Yeo-sun's 〈The Green Gap〉 (1996), the paper analyzes how affective rhythms, temporal compression, and performative procedures function as narrative

devices that regulate and validate emotional expressions. In 〈Ten Years〉, the repetition of rituals around 'devotion' reveals how specific affects—such as grief or sacrifice—are selectively formalized, while women's care work and background affective labor remain unrecognized within the narrative's emotional economy. 〈The Green Gap〉, by contrast, experiments with disrupting this approval mechanism—portraying care, maintenance, and lesbian desire as affective expressions that resist and reframe the dominant emotional approval plo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emotional content,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al operations of affective devices—rhythms, spatial infrastructures, speech permissions, and discursive thresholds—that shape how affect becomes legible as emotion. The emotional approval plot is thus theorized not only as a repetitive mechanism that validates specific emotions but also as a structure that can be rearranged or disrupted. The paper ultimately proposes a shift from identity politics to what may be called "device politics"—a framework for analyzing how narrative form organizes the transition from affect to emotion.

Key words: Bang Hyun-seok, Kwon Yeo-sun, Activist Narrative, Post-movement Literature, Emotional Approval Plot, Plot of Devotion, Gendered Threshold of Access, Performative Device, Performative Reproduction of Emotion, Queer Desire

논문제출 / 2025.11.13.
논문접수 / 2025.11.16.
게재확정 / 2025.12.10.